



Asian Games

INCHEON 2014

Candidate City

INCHEON 2014

Good Morning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INCHEON

굿모닝인천

2006 | 9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안상수 시장, 러시아 공로훈장 받다

안상수 시장이 지난달 9일 러시아 정부로부터 양국간 교류발전에 힘쓴 공로로 국제협력기여 휘장메달을 받았다. 안 시장은 서울 정동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글레브 이바첸초프 대사로부터 양국의 동반자 관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협력 공로 훈장(메달)'을 받았다. 러시아 정부를 대표해 이바첸초프 주한대사가 대신 전달한 이 훈장은 러시아 외교부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훈장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받기는 처음이다.

우리시는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제물포 앞바다에서 일본 함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자폭한 러시아 군함 바랴크호의 추모비를 건립할 수 있도록 2004년 2월 연안부두에 5평 남짓한 부지를 제공했다.

이것이 계기가 돼 이바첸초프 대사가 안 시장을 예방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상트 페테르부르크대학 일행과 러시아 해군 부제독 등이 추모비를 찾아 현화했다. 이어 우리시 대표단이 러시아 이르쿠츠크를 답례 방문하는 등 최근 인천과 러시아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굿모닝인천

2006.9 (통권 153호)



표지설명
코스모스 핀 해양생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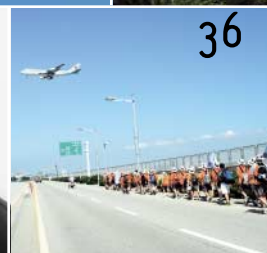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현(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6년 9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2 안상수 시장, 러시아 공로훈장 받다
- 04 가족과 함께하는 9월 | 가을축제 한마당
- 06 Comming Soon | 인천삼산시립체육관
- 10 포커스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본격 개발
- 12 강화역사탐방 | 삼랑성(정족산성) 성돌이 기행
- 16 이달의 공연 | 암모암모 콘서트 외
- 18 인천시립극단 정기공연 '시련 (The Crucible)'
- 19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이네싸 갈란테
- 20 굿인천 굿뉴스 | 美 하원 의원, 맥아더 동상에 헌화 외
- 23 경제자유구역소식 | 인천공항 물류시설 개발 협약 외
- 23 시의회 소식 | 여성의원, 여성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가져
- 24 굿모닝인터뷰 | 인천광역시의회 노경수 제1부의장
인천광역시의회 고진섭 제2부의장
- 26 인천을 재생한다 | ② 경인전철 역세권 주변사업
- 29 굿모닝時評 | 희망을 물어버린 땅
- 30 역사책갈피 | 9·15 인천상륙작전
- 32 김치찰각
- 33 참살이 동의보감 | 요통
- 34 줄인 |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
- 35 리뷰 |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 36 제6회 인천바로알기 중주 | '가시는 걸음 걸음' 인천을 담고
- 40 인천음식 요리조리 | 강화 더리미 장어
- 42 동행취재 | 제3회 한·일 청소년교류프로그램
- 46 만화로 보는 옛날 옛적에 인천은⑧ | 능허대와 한나루의 기생바위
-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우리 옷방의 고구려 여인, '에스터 리' 이현경 씨
- 52 글마당 생각마당 | 이번달 주제 '편지'
- 54 Info Box | 추석연휴 인천가족공원 차량 통제합니다 외
- 58 세 · 상 · 만 · 사 · 仁 · 川 · 萬 · 寫 | 세상이 웃거 뒤집어졌다?



땅과 하늘이 초대하는 가을축제 한마당

지난 여름이 유난히 덥고 길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었다. 바로 9월, 한 달간을 가득 채울 인천의 각종 축제를 기다리기에 지쳤기 때문이었다. 한여름의 열기와는 전혀 다른 가을축제의 '열기' 속으로 초대한다.

제3회 능허대축제 (9월16일~17일)

연수구 능허대를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 새로운 공동체'라는 주제로 매년 능허대축제가 열린다. 올해 3회를 맞는 이 축제는 9월8일과 9월15일 두 번에 걸쳐 사전행사를 펼치는데 백제왕선발대회,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불꽃놀이 등이 각각 준비돼 있다. 16일~17일 열리는 본 행사에는 사신행렬 재현, 백제의상체현, 백제왕과 독대하다, 민속놀이체현, 씨름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다.

장소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 공원 일원

문의 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 810-7761~4 www.능허대축제.com

제19회 인천노동문화제 (9월16일~17일)

인천노동문화제는 올해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노동의 창조적 정서,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적 정서를 기반으로 다른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체험'을 예술로, 놀이로 나누는 공간이 될 것이다. 올해 노동문화제는 놀이와 예술로 소통하는 마을 잔치와 여럿이 만들고, 여럿이 나누는 품앗이 문화를 이끄는 축제로 꾸며진다. 황해라프스티발, 풍물대동굴 한마당, 국악연주, 노동영화 상영회 등이 마련된다.

장소 남구 주안 (옛)시민회관 쉼터공원 외 시내 곳곳

문의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원회 874-1479 ilcf.co.kr

제3회 인천하늘축제 (9월29일~10월1일)

인천하늘축제가 올해 3회를 맞으며 국제공항이 위치한 우리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색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6 인천하늘축제는 '하늘을 날다'라는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문화축제로 개최된다. 영화속 특수효과 체험마당, Art Balloon페스티벌 등이 열리며 축제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해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음악회도 열린다.

장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잔디마당

문의 시 항만공항지원과 440-3372 www.incheonskyfestival.com

제5회 인천음식축제 (9월29일~10월1일)

'인천 맛'의 진수를 알고 싶다면 인천음식축제에 참가해보자. 올해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빵 나눔 행사, 독거노인 초청 무료식회, 사랑의 김치 담가 나눠주기 행사 등 독거노인, 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눔의 축제로 연다. 그밖에도 체지방축정,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케익만들기 대회, 자장면 빨리먹기 대회 등 체험·참여 프로그램과 전시행사, 이벤트 행사 등이 이어진다.

장소 인천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일원 **문의** 시 위생정책과 440-2762

제9회 강화고인돌문화축제 (10월3일)

강화고인돌문화축제는 매년 청동기시대의 족장 무덤인 부근리 강화고인돌 광장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마니산 일원에서 열린다. 돌도끼던지기, 불씨만들기, 고인돌 만들기 등 원시생활 체험행사와 단군왕검이 제를 올렸다는 참성단에서 개천대제(開天大祭) 행사가 열린다. 그밖에도 국내외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강화의 특산물을 홍보·전시·판매하는 행사가 준비된다.

장소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 관광지 일원

문의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930-3623 www.ghgoindol.com

* 행사일정은 본지 57쪽을 참고하세요.



운동에서 공연까지 ‘팔색조’ 체육관



오는 9월 28일 준공되는 인천삼산시립체육관은 부평구 삼산택지개발지구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만3천29㎡를 자랑한다. 7천504석을 갖춘 실내주경기장을 비롯해 598석의 보조경기장을 갖추었고 야외에는 인조 잔디 축구장까지 들어서 있어 웬만한 국제경기를 치르기에 손색이 없는 다목적 체육관이다. 또한 실내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생활체육시설까지 골고루 갖췄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성환 (자유사진가)

체육관이야? 예술회관이야?

지난 2004년 10월 29일 기공식을 가진 삼산시립체육관은 우리나라 체육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우리 인천을 상징하기 위해 비행기를 컨셉으로 체육관을 디자인한 결과 일반적인 실내 체육관 같은 돔 형태가 아니라 비행기 날개처럼 날렵한 외관으로 주변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킨 듯하다.

삼산시립체육관은 건립공사에서도 몇 가지 자랑거리를 갖게 됐다. 건설업계의 ‘상식’을 뛰어 넘어 공기를 10개월 정도 단축했다. 삼산택지 지역 아파트에 입주자가 시작되기 전이라 24시간 땅파기 작업을 한 결과라는데 체육관 건립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의 이선표 소장의 설명이다.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한 것도 눈에 띈다. 태양열을 생활 체육시설 샤워실의 급탕열로 이용하고, 빗물, 지열, 자연환기 등의 대체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우리시는 실외경기는 ‘문학’, 실내경기는 ‘삼산’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어떤 국제 스포츠경기도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또한 시민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랑스런 체육관을 갖게 돼 국제도시 인천의 자부심이 높아질 것이다.

NBA체육관이 부럽지 않은 7가지 이유

- ① **관람석** _ 경기장의 관람석은 둥근 타원형이다. 덕분에 어느 곳에 자리를 잡든 사각지대 없이 경기장을 내려다 볼 수 있다.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식 좌석’은 ‘보는 맛’을 더해준다.
- ② **스카이박스** _ 경기장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최상등급의 단체 관람석이다. 6개의 스카이박스는 단체나 기업체가 비즈니스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룸식 관람석이다. 카페트가 깔려 있는 20개 좌석에 앉아 회의나 미팅을 하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 ③ **엘리베이터** _ 장애인이나 체육관을 찾으면 ‘특별대우’를 받는다. 3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상승’할 수 있다.
- ④ **레스토랑** _ 3층 레스토랑은 경기에 빠져 허기마저 잊은 이들을 위한 장소다. 식사를 하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창 넓은 유리창으로 내려보는 공원이 시원하다.
- ⑤ **데크** _ 경기가 끝나기 전, 어떻게 하면 빨리 경기장을 빠져 나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2층에는 데크가 있어 많은 관람객이 빠른 시간 내에 퇴장할 수 있다.
- ⑥ **선글라스** _ 지하 1층도 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선글라스를 통해 드나들 수 있어 쾌적하고 편리하다.
- ⑦ **공원** _ 삼산분수광장, 단풍나무숲, 축제광장, 열린광장, 빛나무길, 숲속정원, 수석정원, 푸른광장 등 다양한 규모, 형태의 공원들이 체육관을 중심으로 들어선다.

국제 경기 줄줄이 이어진다



우리시는 삼산시립체육관에 여러 가지 국제경기를 유치해 ‘국제 스포츠 메카 인천’으로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우선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세계청소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 경기에는 세계 50여 개국에서 1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국 규모로 치자면 아시안게임에 버금가는 대회다.

또한 대한농구협회는 ‘2007년 제22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인천을 결정했다. 이 대회는 2008년 북경하계올림픽대회의 예선 대회를 겸하게 되는데 아시아 지역에는 1장의 올림픽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북경하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북한 등 14개 나라가 출전해 1부, 2부로 나뉘어 삼산체육관에서 2007년 6월이나 7월 경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나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 개최지가 우리나라로 결정될 경우 우리시가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체육관의 운영을 맡게될 시설관리공단은 삼산시립체육관 개관 기념으로 K-1(이종격투기)월드그랑프리 인천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K-1 경기의 인천유치가 결정되면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대회가 열리게 돼 삼산체육관에 외국인 선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 삼산시립체육관 꼼꼼히 들여다보기

층별개요	
지상 3층	관람석, 레스토랑, 스카이박스
지상 2층	VIP석, 임원석, 콘코스, 관람객 편의시설
지상 1층	경기장, 경기운영시설, 방송보도실, 컨벤션센터, 소극장
지하 1층	생활체육시설(헬스, 에어로빅, 수영장, 사우나 등), 주차장
지하 2층	보조경기장, 기계·전기실, 주차장

생생한 현장감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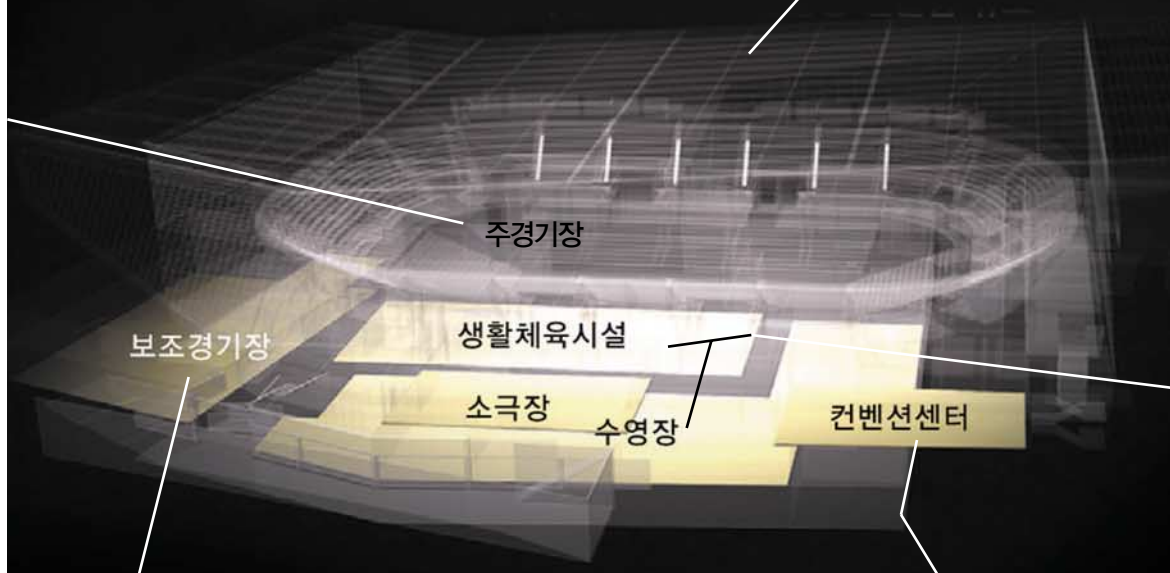
7천5백석을 갖춘 주경기장은 2,926㎡에 이르는 체조경기장 규격이다. 이곳에서는 농구와 배구를 비롯해 14개 종목의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주경기장은 좌석 배치가 남다르다. 4천878석은 고정돼 있는

좌석이지만 2천626석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가변식 좌석이다. 경기장을 넓게 사용해야하는 종목인 경우에는 관중석 아래로 숨었다가 농구나 배구처럼 경기장이 작은 경우에는 다시 나타나는 좌석이다. 덕분에 농구 등의 경기는 좌석을 경기장 앞으로 끌어당겨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코앞에서 경기를 볼 수 있어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주경기장은 앞으로 프로농구팀 전자랜드의 전용구장으로 이용될 예정이라 전자랜드팀의 홈경기를 다른 지역에 가서 봐야했던 농구팬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겠다.

또한 남·여 프로배구 경기를 비롯해 배드민턴, 펜싱 등의 국제대회와 농구, 핸드볼, 검도, 배구, 태권도, 탁구 등의 전국대회 개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콘서트와 공연, 문화행사, 박람회 등도 주경기장에서 치를 수 있다. 가장 빠른 일정으로는 우리시가 오는 10월 14일 청소년대축제를 이곳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산책코스로 안성맞춤

체육관 동쪽에는 다목적 운동장과 운동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야외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광장, 꽃길, 정원 등의 녹지조경 시설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종합체육공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축구장은 대관을 통해 축구동호회 등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농구장과 족구장, 조깅코스 등은 무료로 개방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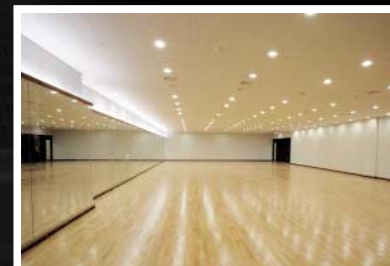
또 체육관 북쪽에는 석정원이 남쪽에는 분수광장이 조성될 계획이라 시민들이 산책코스로 이용하기에 적당하다.



우리 동네 스포츠센터로 '찜'

인천삼산시립체육관은 국제대회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했다. 이곳에는 25m 6레인과 유아용 풀을 갖춘 수영장을 비롯해 유·무산소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 에어로빅장 2개소 등이 자리를 잡았다.

수영장에서는 수영강습을 비롯해 스킨스쿠버, 아쿠아로빅, 수중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헬스장에서는 헬스와 비만 클리닉이, 에어로빅장에서는 발레, 밸리댄스, 요가, 힙합댄스, 에어로빅,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사교댄스 등의 프로그램이 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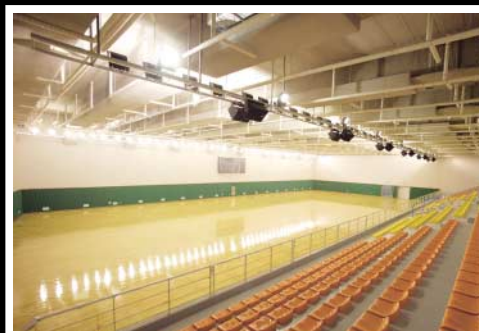
운동도 하고 공연도 즐기고

컨벤션센터에서는 250명 정도가 모여 집회와 연회를 열 수 있다. 또한 260 좌석을 갖춘 소극장은 주부가요교실, 어린이 뮤지컬교실, 건강강좌, 성인연극교실, 교양강좌 등이 열리는 문화센터의 역할도 하게 된다.



국제경기도 가능

보조경기장은 598석의 규모로 1,035㎡의 핸드볼경기장 규격이다. 이곳에서는 핸드볼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자랜드 남자프로농구단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이용된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이곳에서 농구, 검도, 탁구, 배드민턴 등의 클럽스포츠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별한 경기가 없는 날이면 시민들이 농구, 배구 등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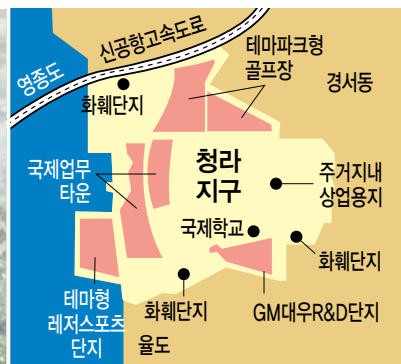


* 찾아가는 길 - 경인전철 부개역에서 시내버스67-1번을 이용해 체육관 앞에서 내리거나 부평역에서 마을버스 565번을 이용해 삼산주공 5·6단지에서 내린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가 한창인데, 체육관 앞으로 부개역(가칭)이 생길 예정이다.

푸른 섬에서 푸른 꿈의 도시로

청라지구는 2003년 송도, 영종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청라지구는 지난 7월 기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청라지구는 글로벌 경영기준에 맞는 다양한 자원과 외국인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북아 최적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글·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자료제공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890-5114)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지구 개발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또 지난 8월2일에는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개발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청라지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사업비 5조6천억원을 투입해 2008년까지 토목공

사구의 원창, 연희, 경서동 일대에 위치한 청라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이르는 약 538만평에 해당되는 광활한 희망의 대지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던 청라도는 1992년, 일도, 이도 등 인근 섬들과 연결되는 매립공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농경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국제도시의 꿈을 키워왔으며, 지난 7월 24일 우리시와 한국토지공사는 한명숙 국무총리 등

사를 완료하고 2012년까지 조성되며 9만명 이상을 수용하게 된다.

청라구역 내 외자유치와 각종 건축, 국제업무 및 상업물류, 관광 및 레저 등에서 직접 투자될 사업규모는 총 31조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114조원, 고용유발효과 27만7천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라지구 미래 장면 5

청라지구 538만평에는 복합용지에 상업·업무시설 단지와 공동·단독주택 3만1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투자유치용지에는 골프장과 테마파크, 외국 의료기관, 교육기관이 들어선다. 그밖에도 아시아 각국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안빌리지 등이 세워진다.

1 그린 네트워크 조성

청라도를 관통하는 길이 6km에 달하는 공촌천과 심곡천을 친수환경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단지 중앙에 21만평의 호수공원(폭400m, 길이 2km)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동서방향의 폭 50m, 길이 4km의 보행공원과 대규모 근린공원을 연계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한다.

2 물의 도시, 청라

청라지구 중심 21만평의 호수공원에 북한까지 조망할 수 있는 시티타워를 건설한다. 유람선을 타고 관광과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운하를 계획하는 등 청라 경제자유구역의 물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해 건설한다.

3 완벽한 기반시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연장,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지구내로 2개의 고속도로를 연결한다. 또 공항고속철도 청라역사(驛舍)를 신설하는 등 수도권에서의 진·출입을 개선하

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상·하수도, 전력·통신 등의 완벽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4 친환경적 최첨단 도시

청소차가 없는 자동 크린넷시설을 도입하고 최첨단 U-City 조성 등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 도시를 조성한다. 기상정보, 환경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시정보화를 통한 공공정보와 도시포털 서비스 확충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민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최첨단도시로 건설한다.

5 미래 지향적 도시

인간의 장애유무, 건강상태 등 다양성을 고려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의 주택을 건설한다. 도시설계 부문에서도 노인과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물리적, 정보적, 심리적으로 장벽이 없는 도시를 구현하는 무장벽(Barrier Free)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 정관은 미래지향적 첨단이미지의 정관을 계획 중이며, 독창적인 야간정관을 연출해 보는 정관만이 아닌 즐기는 정관으로 만들고 이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



육지가 된 섬 청라도

청라도(靑蘿島)는 원창동 한자곶 해안에서 3.5km, 연희동 용의머리반도 서단에서 2.5km 떨어진 섬이었다. 푸른 넝쿨 관목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서곶 사람들은 '파란 섬'이라는 뜻으로 '파렴'이라고 불렀는데 멀리 보이는 그 섬이 유난히 푸른색이기 때문이었다. 서곶 앞바다의 섬들 중 가장 컸으며 썰물 때 부지런히 갯벌을 걸으면 밀물이 오기 전 섬에 이를 수 있었다. 원창동에서 가려면 갯골을 3개, 연희동에서 가려면 갯골 5개를 건너야 했다. 김포매립지가 만들어지면서 육지의 끝이 됐다. (발췌: 인천광역시 서구사)



천년 요새 휘감도는 역사의 바람

결코 식지 않을 것 같던 태양도 자연의 순리에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성벽을 휘감도는 바람에서 벌써 찬 기운이 묻어나기 시작한다. 강화들판으로부터 불어오는 풍요의 바람, 역사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기 위해 천년 요새에 오른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김성환 (자유사진가)

단군의 아들이 쌓은 城

천년고찰 전등사에 들어가려면 성문을 지나야 한다. 무심코 그 성문을 지나는 순간 우리는 수 천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된다. 삼랑성에 들어서면 신화(神話)와 역사(歷史)가 교차한다. 축조 연대를 알 수 없는 아득한 시간에 단군은 세 아들 부여, 부우, 부소에게 삼랑성(三郎城)을 쌓게 했다.

삼랑성은 정족산성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성곽이 있는 산 이름이 정족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해발 220m의 정족산(鼎足山)은 큰 산봉우리가 마치 세발 달린 술처럼 보인다고 해서 ‘술정(鼎)’ 자에 ‘발족(足)’ 자를 쓴 것이다. 강화도의 주봉인 마니산의 한줄기가 북동쪽으로 뻗어 길상면 온수리에 이르러 다시 세 봉우리를 만들고 있는 산이 정족산이다.

삼랑성은 산의 지형을 이용해 능선을 따라 지은 성으로 길이가 2,300m이며 동·서·남·북문이 있다. 성벽 높이는 3m에서 5m까지 이르는데 곳곳에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벽은 실제보다 아득하게 느껴진다.

천년고찰을 품은 城

성(城) 안에 너무나 유명한 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작 그 사찰을 가슴에 품고 있는 성의 존재를 잊고 있는 듯하다. 삼랑성 기행은 성곽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흥에 돌문인 동문부터 시작해 남문-서문-북문으로 이어진다. 성돌이 기행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길로 이어져 있어 가벼운 트래킹 수준이지만 서문과 북문 사이의 일부 구간은 등산이라 할 정도로 오르내림이 심하다.

출발점 동문 옆으로 이어진 달맞이 길로 접어들면 바로 숲속 기행의 맛을 느낄 정도로 나무가 우거지다. 회색빛 성곽을 가이드삼아 산길로 오르면 어느새 마을과 논이 발아래 놓이고 육지와 섬을 갈라놓는 염하의 물줄기가 눈앞에 보인다.

삼랑성은 미끈한 다듬돌이 아닌 산 속에 굴러다니는 막돌로 주춧돌 삼고 쌓기돌을 박아 축조되었다. 단군시대에 쌓았던 성이 세월의 무게에 눌러 무너져 내리면 삼국시대에 다시 쌓고 풍파에 시달려 또 무너지면 고려, 조선에 다시 쌓으며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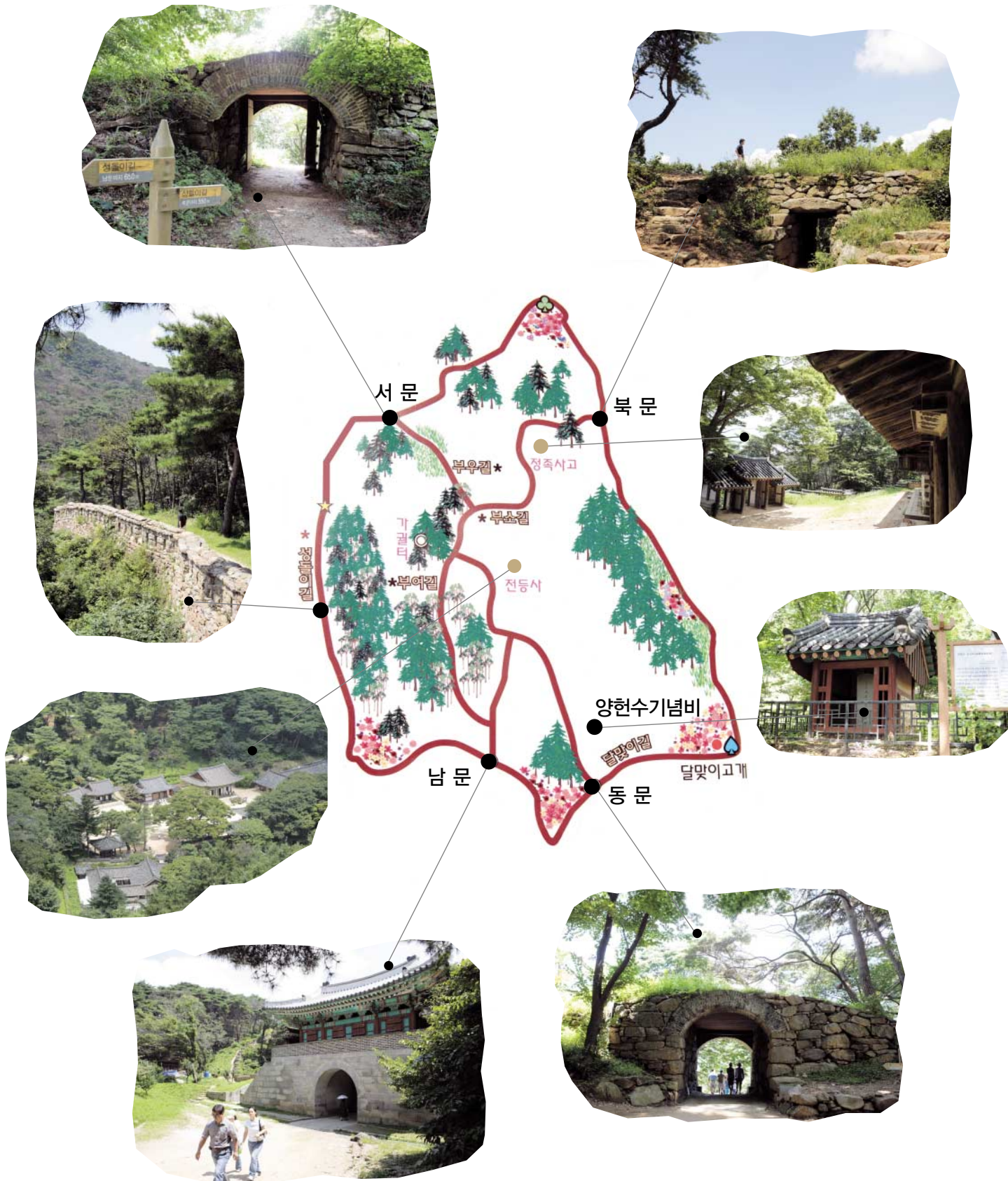


동문에서 약 250m 오르내리면 번듯한 문루가 세워진 남문을 만나게 된다. ‘종해루’라는 현판이 달린 남문 덕분에 그나마 삼랑성은 성으로서의 자태를 뽐낼 수 있다. 남문을 거쳐 다시 산길로 접어들면 이제 웬만한 곳은 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지대가 높아진다.

불쑥 솟은 바위에 오르니 사바세계가 한눈에 들어온다.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372년에 창건된 전등사 도량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고즈넉하게 내려다 보인다.

역사를 지킨 城

성은 방어체계의 근간이다. 삼랑성은 강화남부와 김포반도 그리고 인천까지 이어지는 해양방어망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한때 이 성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고종 3년(1866년) 프랑스 함대 올리비에 대령은 프랑스군 160명을 이끌고 동문과 남문을 공격해 왔다. 양현수 장군의 통솔 아래 조선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프랑스군을 패퇴시킨다. 이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고종 10년(1873)에 양현수 장군 승



전비가 동문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세워졌다.

서문은 앞의 두 문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사람들의 통행도 거의 없어 문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듯하다. 서문을 거쳐 산길로 오르기 전에 오른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내려오면 정족산 사고(史庫)가 나온다. 조선 현종 원년(1660)에 실록을 보관하기 위해 정족산사고인 장사각이 지어졌다. 현재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는 선원보각 현판도 함께 걸려있다. 보관돼 있던 실록과 족보는 현재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지금이나 당시나 정족산은 물이 한번 막고 성곽이 한번 막는 천연요새로 귀중한 실록을 숨기기에 적합한 듯하다.

다시 성곽 길로 접어들어 북문으로 향한다. 정족산의 최고 봉에 서니 강화의 남단이 눈에 들어온다. 단군의 전설을 간직한 마니산의 영봉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 단군의 세 아들은 참성단에서 정성껏 하늘에 제를 지낸 후 지척에 있는 정족산으로 건너와 각자 한 봉우리씩 맡아 천년 요새 삼랑성을 세웠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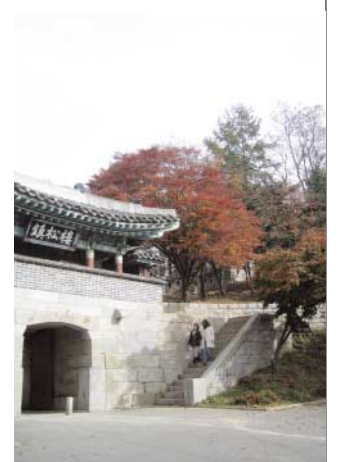
북문도 서문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흥예돌문이다. 북문 성곽길에서는 길정저수지, 고려산, 석모도... 멀리 개성 송악산의 자태도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시야가 좋다. 동문에서 출발해 남문, 서문, 북문을 거쳐 다시 출발점 동문으로 돌아왔다. 짧은 시계바늘이 2칸을 지나 있었다.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다시 현재까지의 여정을 두 시간 만에 끝낸 것이다.☀



城邑도시 강화

강화도는 우리나라 역사의 수난기 때마다 피난처 역할을 하거나 국난위기 때마다 최전방 방어막 혹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강화도 뿐만 아니라 교동읍성 등 주변 섬에도 성(城)이 구축돼 있다.

강화도의 대표적인 성, 강화산성은 강화읍을 휘돌아 감싸고 있는 길이 7,122m 석성(石城)이다. 고려 고종 때 강화도로 천도한 후 대몽항쟁을 계속하기 위해 각 도의 장정들을 선발하여 처음에는 토성으로 쌓았다. 먼저 강화읍 북산에서 선원면까지 내성(內城)을 쌓았고 이후에 해안선을 따라 외성(外城)과 내성 수비를 위해 중성(中城)을 축조했지만 몽고의 요구에 의해 다 헐리게 된다. 강화산성은 1710년(숙종36)에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되어 서문, 남문, 북문, 석수문 등이 남아있다. 강화군청에서 추천하는 산성기행 코스는 강화산성남문 > 남산약수터 > 석수문 > 연무당옛터 > 서문 > 북문 > 오읍약수터 > 고려 궁지 > 김상헌선생수절비 > 용흥궁 > 토산품판매장 > 풍물시장 순이다.



막上막下

이 달의 공연

암모암모 콘서트

암모암모는 이태리 나폴리 사투리로 '가자 가자!' 라는 뜻이다. '암모암모 콘서트'는 대중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이다. 개그맨 전유성씨가 흥감독 한 이 공연은 '웃음소리로 객석이 들썩거렸던 음악회',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떠든 음악회'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성악가들의 연기와 재치를 느낄 수 있는 음악회이다.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이루고자 젊은 성악가 30여명이 주축이 돼 2001년 1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을 시작으로 TV뉴스 등 매스컴의 집중을 받으며 공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일시 _ 9월30일(토) 오후 4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티켓 _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760-3463~6)

연극 사슴아 사슴아



연출상(송용일), 최우수여자연기상(이경미)을 수상했다. 이번 공연은 전국연극제 인천 대표작 참가에 앞선 일종의 시연회이다.

일시 _ 9월16일(토), 17일(일)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극단 십년후의 〈사슴아 사슴아〉는 '목중비곡(穆宗悲曲)'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비운의 왕, 고려 목종의 슬픈 이야기를 그린 연극이다. 지난 4월 7개 극단이 참가한 인천 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

극단 십년후의 〈사슴아 사슴아〉는 '목중비곡(穆宗悲曲)'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비운의 왕, 고려 목종의 슬픈 이야기를 그린 연극이다. 지난 4월 7개 극단이 참가한 인천 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

티켓 _ R석 20,000원 S석 15,000원
문의 _ 극단 십년후 (514-2050)

뮤지컬 뽀로로와 별나라요정

〈뽀로로와 별나라요정〉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특성을 실려 춤, 노래, 미술, 특수효과 등으로 새롭게 선보인 뮤지컬이다. 애니메이션과 미디어 아트의 전문가들이 무대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시각적인 영상을 접목시킨 환상적인 무대를 보여준다. 우주선의 불시착,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올라가 별이 되는 장면, 3m가 넘는 드래곤이 뿜어내는 불, 형형색색의 요정 등 빛을 이용한 영상이 연출된다.

일시 _ 9월16일(토), 17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장소 _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층R석 30,000원 2층S석 25,000원
문의 _ 창라이프(1566-6551)

극단 마디 그해엔 아무 일도 없었다

일본 현대문학의 대표주자이며 39세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한 다자이 오사무의 원작 '사형'을 통해 현대사회의 무너져가는 가치와 허무, 절망을 시적이고 애잔한 장면들로 묘사해낸 사랑과 혁명의 실존적 반인극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국내 초연을 한 연극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무용의 독창적 동작을 접목해 환상적 장면을 추가하였다.

일시 _ 9월7일(목)~10일(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 · 일 오후 4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전석 10,000원
문의 _ 극단 마디 (814-4572)

제5회 인천-타키 현대미술국제교류전

9월15일부터 21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인천-타키 현대미술국제교류전'이 열린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한국 타키 간 미술교류전이 이루어져 어느덧 5회째를 맞게 되었다. 오늘날 타키미술은 서구의 변방을 뛰어넘어 세계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수준이며 특히 이스타노 블 비엔날레를 통하여 세계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타키 전통의 미술문화를 지켜가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양국의 문화가 공식적·지속적으로 교류한다는 의미와 스스로의 고유한 가치와 독자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됨으로써 세계미술의 보편성 안에서 양국미술의 동질성과 개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문의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회 867-2196



인천환경미술협회 태마전 (430-1157)
8월30일~9월5일 신세계갤러리
제7회 인천시미술전람회 (561-4190)
9월1일~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명함반대 사진부작사람들 (882-5599)
9월15일~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제22회 사진모임 새빛사진전 (016-255-7947)
9월1일~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중앙전시실
제8회 산우회전 (522-8092)
9월1일~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중앙전시실
이창구 한국화전 (430-1157)
9월8일~14일 신세계갤러리
2006 인천아트페어 (867-2196)
9월8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제2회 POSSIBLE 사랑, 그림회 (018-744-1856)
9월22일~2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Pre-국제인간정서미술비엔날레
국내여성작가개인전(다양숙의 초대)
9월10일까지
9월15일~20일 신세계갤러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실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4	 가을빛이 한국가곡의 밤 오후 7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사리재홀(대공연장) 2만, 1만, 5천 010-4782-4342	5	 미추홀오페라단 가을빛이 가곡과 아리아의 밤 오후 7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사리재홀(대공연장) 2만, 1만, 5천 010-4782-4342	6	 최경희 무용단(고려의 빛)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5천원 527-6048	7	 Brunch with orchestra concert 11시시트 오후 11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만원 시립교향악단 420-2781 통합신앙연행 출범기념교래초청 서울로인상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초대 / 02-3444-0071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원 / 극단마디 814-4572	8	 사회복지인 한마음가요제 화합콘서트 오후 1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초대 /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 883-1773 금요예술무대(푸진드림소 Hammer)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420-2017	9	 W.O.W 신나는 우리들 영상제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사)창조소년년권복지센터 528-3669 연극그해엔 아무일도 없었다 (~10일) 오후 4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원 / 극단마디 814-4572	10	 가을빛이 한국가곡의 밤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2만원, 1만원 (사)인천음악문화원 429-0248 대극장악발표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대공연장) / 오후 3시 / 무료 대극장악발표회 011-384-0758	11	 인천YWCA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료 424-0524 창작 음악극 '황진이' 신곡' (~13) 12일(화) 오후 7시30분 13일(수) 오후 4시30분 7시30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대공연장) / 1만, 5천 극단 집현 017-244-8147	12	 인천창소년필하모니 제2화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019-9026-8841 2006인천안무가전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760-8859	13	 인천첼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오후 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7천원 438-6040 가족뮤지컬 〈토끼의 바다속 구경이야기〉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2천원 / 피마세상 572-4281	14	 인천첼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오후 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7천원 438-6040 가족뮤지컬 〈토끼의 바다속 구경이야기〉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2천원 / 피마세상 572-4281	15	 금요예술무대(Art of Voice)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 무료 420-2017 가족뮤지컬(토끼의 바다속 구경이야기) 오전 10시40분 1시20분 /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2천원 피마세상 572-4281 인천그림오페라단 제1회 정기공연 〈결혼〉 9월5일 오후 7시30분 / 9월16일 오후 7시30분 / 9월16일 오후 7시30분 개양문화회관 공연장 /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551-6602, 3	16	 제24회 전국연극제 인천대표작 참가 시연회 (사슴아 사슴아) 오후 3시, 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2만원, 1만5천원 인천연극협회 514-2050 인천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오후 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 무료 438-7774 인천그림오페라단 제1회 정기공연 〈결혼〉 9월5일 오후 7시30분 / 9월16일 오후 7시30분 / 9월16일 오후 7시30분 개양문화회관 공연장 /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 551-6602, 3	17	 제24회 전국연극제 인천대표작 참가 시연회 (사슴아 사슴아) 오후 3시, 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2만원, 1만5천원 인천연극협회 514-2050 인천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오후 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 무료 438-7774 인천그림오페라단 제1회 정기공연 〈결혼〉 9월5일 오후 7시30분 / 9월16일 오후 7시30분 / 9월16일 오후 7시30분 개양문화회관 공연장 /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 551-6602, 3	23	 송대관 태진아 라이브콘서트 오후3시, 6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7만, 6만, 5만, 4만 아폴로 기획 322-2121	24	 송대관 태진아 라이브콘서트 오후3시, 6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7만, 6만, 5만, 4만 아폴로 기획 322-2121	29	 이내사 길란테 독창회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30원, 2천원 인천81아츠 사무국 02-3446-0642 금요예술무대 하소하의 펄리덴스페스티벌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17	30	 암모암모 콘서트 오후4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2만원, 1만5천원, 1만원 아폴로 기획 760-3463~6 2006년 동물터 나나들이 제1회 정기공연 / 오후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526-1630

※ 공연 및 전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시련 (The Crucible)



인천시립극단은 제43회 정기공연으로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시련 (The Crucible)>을 무대에 올린다. 시립극단의 상임단원 전원과 일부 객원 연기자들이 출연하는 이 작품은 세계적인 명작으로 정통 연극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아서 밀러의 작품인 <시련>은 1692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세일럼 마을에서 일어난 '마녀사냥'을 배경으로 인간의 본성을 심도 깊게 그려낸 작품이다. 광신적인 종교집단의 광기가 개인에게 가하는 횡포와 소시민의 처참한 파멸, 그리고 이에 맞서 양심에 따라 목숨을 걸고 명예와 권위를 지켜가는 순교자의 희생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했다. 혼란한 삶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이 작품의 주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로 인정된다.

모든 주민들이 경건하게 종교에 의지하여 사는 공동체 마을인 세일럼에서 어른들의 도덕적인 엄숙주의에 짓눌려 숨이 막힐 지경인 10대 소녀 몇 명이 벌거벗은 채 춤을 추며 악마의 의식을 거행한다.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었던 파리스 목사의 딸인 베틀이 쓰러지면서 사람들은 베틀에게 악마가 들었다고 몰아간다.

베틀의 친구인 에비게일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농부 프록터와 깊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를 죽이려는 충동을 느낀다. 소녀들의 집단적 광기는 마녀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세일럼의 선량한 사람들을 교수대의 무고한 희생자로 만들지만, 엘리자베스를 향한 에비게일의 증오심은 식을 줄을 모른다. 세일럼의 마녀 재판은 종교의 중압감과 더불어 극도로 치닫게 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던 프록터는 끝내 감동적인 순교자의 길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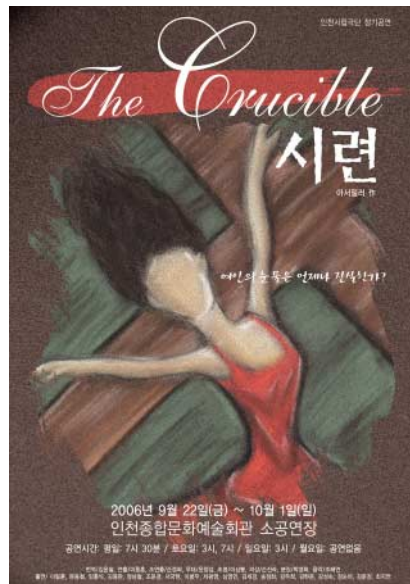
일시 9월 22일(금) ~ 10월 1일(일) 평일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오후 3시 · 7시30분 / 일요일 오후 3시 /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일반 15,000원 학생 10,000원 예매 인천시립극단 (438-7775 www.artincheon.or.kr)

차한잔 | 예술감독 겸 상임연출 이종훈

<시련>은 지난 7월 시립극단 5대 예술감독에 부임한 이종훈 연출가의 첫 번째 정기공연이다. 대체로 선이 굵고 무게가 실린 작품들을 무대에 올려 온 이종훈 예술감독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연출가로 한국연극계의 새 장을 열어난 최고의 연출가로 손꼽힌다.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이기도 한 이종훈 감독은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독특한 작업으로 평론가 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의 찬사를 받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뮤지컬이 대중예술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단원들과 함께 공연준비에 한창인 이종훈 예술감독은 "시립극단이 객석과 함께 호흡하며 인천시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예술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서 밀러의 대작인 <시련>을 통해 관객들에게는 고품격의 정통연극을 선보이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시립극단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공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네싸 갈란테

진흙 속의 진주처럼 세상에 잊혀졌던 카치니의 '아베마리아'를 불러 모든 이의 심금을 울린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이네싸 갈란테가 『2006 인천 & 아츠』를 통해 인천 무대에 선다. 그녀가 부르는 카치니 아베마리아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한다. 갈란테는 옛 소련의 라트비아 공화국 출신으로 1992년 독일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의 파미나 역으로 서방권에 첫 선을 보인 이래 이제는 일급 가수의 반열에 올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의 콘서트는 단순히 소프라노의 기교를 뽐내는 자리가 아닌 한 편의 서정적 에세이와도 같은 음악회이다. 이네싸 갈란테는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곡에 얹힌 사연이나 그녀가 사는 이야기 등을 다정다감한 설명을 덧붙이며 전혀 과장되지 않은 순수한 목소리로 관객들과 교감한다.

더욱이 이번 공연은 오페라 아리아 외에도 갈란테 자신의 고향인 러시아의 노래들이 준비되어 있다. 낮게 내린 저음에 함께 숨을 멈추었다가, 결코 서두르지 않고 다시 떠올라 서서히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이 시대 최고의 소프라노 이네싸 갈란테가 들려주는 러시아인 로망스의 애수는 가을날 밤의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일시 9월29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인천&아츠 사무국 (420-2020 /02-3446-0642)



Brunch with Orchestra Concert



지난 6월 처음 개최된 'Brunch with 인천시립교향악단 콘서트'는 오전시간에 품격있는 연주회로 주부와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무대이다. 이번 공연에서도 세미클래식, 대중적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출연자와 함께 팬

사인회와 대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일시 9월7일(목) 오전 11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인천시립교향악단 (420-2781)

프로그램

쥘레 / 서곡(경기병)
브람스 / 헝가리안 댄스
A.L.Webber / Selections from 'CAT'S'
사라사테/ 지고이네르 바이젠 작품.20
스크린 뮤직 / 영화음악 메들리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1악장)
작품.622
헨델/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Opera from 'Serse'-
비제/ 하바네라
-Opera from 'Carmen'-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바단조(4악장)

내집처럼 편하게 민원 보세요



우리시는 시민들이 편리함과 쾌적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을 리모델링해 지난 8월11일 새로 문을 열었다. 기존 종합민원실은 93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6월22일부터 8월5일까지 총공사비 2억7천만원을 들여 민원 대기공간을 77평에서 99평으로 대폭 확장했다. 또 민원인과 1대1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외부휴게실, 카페공간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우리시는 민원

실 내에 있는 우체국과 은행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민원인을 위한 유아놀이방과 건강검진실 등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자치행정과 440-2460

우리시 특산품 브랜드화

부평도서관 지식재산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시 특산품이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 화문석과 백령도 까나리액젓 등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특산품에 대한 상표권 등록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부평도서관은 지역브랜드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생산·가공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

획이다. 이를 통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상품 용기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이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부평도서관 지식재산센터 512-8023

송도자원환경센터 개소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지난 7월27일 준공

美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맥아더 장군 동상에 헌화

미국정치를 대표하는 하원의 헨리 하이드(Henry Hyde) 국제관계위원장은 지난 8월 11일 자유공원을 방문해 맥아더 장군 동상에 헌화하고 동상 철거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국회의원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한국인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인천상륙작전에서 흘린 선열들의 피의 대가이며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사람의 위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우정을 위해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사람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에 상륙했고 장군이 상륙한 그때의 인천은 폐허의 도시였지만 이제 인구 265만명이나 되는 세계적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 16선 의원인 헨리 하이드(82세) 국제관계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맥아더 장군의 지휘아래 필리핀 상륙작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460



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연수구 동춘동 LNG 인수기지 내에 1천 500여억원을 들여 건립된 센터는 1일 처리량 50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200t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센터와 가까운 남동구와 연수구 일부 지역에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게 된다. 센터에는 또 남녀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우나와 수영장, 헬스장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됐고 9홀 규모의 미니 골프장과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시민편의 시설도 조성됐다.

문의 _ 시 폐기물자원과 440-3580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

우리시는 보건복지부에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음식문화개선 사업과 맛있는 집,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특색음식거리 지정관리 등 특색사업,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시·도별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연수구가 우수구로 선정됐으며 우수업소와 우수공무원 등도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함께 동북아 허브도시로서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국제수준의 음식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알뜰하고 위생적이며 영양면에서 균형잡힌 ‘좋은식단’ 실천 추진 등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위생정책과 440-2763

동남아시아 유치홍보 펼쳐

2014인천아시아게임유치위원회는 지난 8월16일~23일 ‘남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스리랑카 콜롬비아와 태국, 싱가포르 등 3개국을 방문해 유치활동을 펼쳤다. 대회에 참석한 국가 올림픽위원회(NOC)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인천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 임원들과의 유대관계도 강화했다. 유치위는 오는 11월 OCA실사단의 인천방문을 대비해 남은 기간동안 인천의 장점을 부각하고 개최지의 입지여건과 경기장, 숙박시설 등을 확대 보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14년 아시안게임대회 개최지를 내년 4월 쿠웨이트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문의 _ 2014인천아시아게임유치위원회

440-2014, www.incheon2014ag.org

한국이민사박물관 착공



지난 7월28일 중구 복성동 1가에서 한국이민사박물관 착공식이 열렸다. 총 사업비 115억7천900만원을 들여 3천264평(10,792.7㎡)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248.5평(4,127.41㎡)규모로 건립된다. 박물관은 2008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어지며 100년전 제물포항을 통해 전세계로 향했던 한국 이민의

역사가 전시된다. 1920년 인천항에서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한 이민 1세대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다. 박물관에는 지난 한세기 동안의 시대별 이민사와 미국, 중국, 러시아, 중남미 등 해외 한인사회의 성장사에 대한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된다. 또 이민 기록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수 있는 영상실과 이민 관련 도서, 논문 등을 비치한 자료실도 갖출 계획이다.

문의 _ 문화예술과 440-4036

홈스테이 통해 문화를 배웠어요

인천국제교류센터는 지난 8월9일~13일 4박5일 동안 중국 대련시 청소년들을 초청해 우리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홈스테이를 실시했다. 양국 청소년들은 홈스테이를 통해 국제적 소양을 키우고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국청소년들은 인천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양국 청소년들은 인천시내, 강화유적지 등을 견학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우정을 쌓았다.

문의 _ 인천국제교류센터 441-8167

우리시 인구 계속 증가

지난 6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264만 87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0.48%(1만2천693명)가 증가한 것이다. 총 가구수는 작년 말에 비해 1.18%(1만1천5가구) 늘어난 94만4천 691가구로, 성별로는 남자(133만9천 275명)가 여자(130만5천596명)보다 많다. 구별로 부평구가 57만5천325명

으로 우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다. 삼산1, 2동 아파트 입주로 1년새 3천 860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동별 인구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신도시화한 서구의 검단 1동(6만2천412명)이 가장 많은 반면, 남구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민 발생으로 지난해보다 1천789명이 줄었다. 외국인은 지난해 말에 비해 14.8%(4천703명)가 늘어난 3만6천386명으로 한국계 중국인(8천 926명)을 포함한 중국인이 40%(1만4천553명)로 가장 많았다.

문의 _ 정보하담담당실 440-2366

지하철공사 공도팀 창단



인천지하철공사(사장 김우철)는 지난 7월27일 남동구 지하철공사 대회의실에서 공도선수단 창단식을 갖고 공식 출

범했다. 선수단은 인천시국공협회 조상준 전무이사가 초대 사령탑을 맡고 이진형, 이용해, 하기용, 이기덕, 김영환, 박상섭, 김경웅 등 총7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이번 창단을 통해 실업체육이 시민의 건강과 여가를 선도하며 우리시 체육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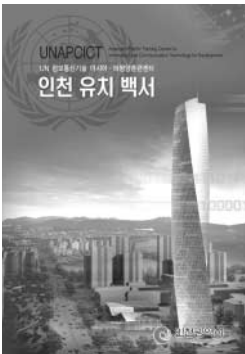
문의 _ 인천지하철공사 451-2146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우리시는 재난시 복구지원활동에 나설 자원봉사자들을 통합관리하고 교육을 맡아 운영할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건립한다. 2010년까지 125억원을 투입해 1천여평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짓는다. 전문분야별 교육장과 체험봉사관, 체육·문화시설, 휴게시설 등이 마련된다. 현재 건립부지는 연수구 동춘동과 송도 LNG가스기지내, 남구 용현학익지구내 등이 검토 중이다. 우리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원활동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70

UN APCICT유치 백서발간



우리시는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 UN APCICT(유엔 정보통신 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유치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는 우리시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 유관기관들이 하나가 돼 APCICT를 유치하기까지의 전 과정, 유치의의, 유치경위 등이 소개됐다. 인천 유치를 반대했던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과정과 센터에 대한 소개 및 교육과정 등이 수록돼 있다. 또 발간사, 개소식 상황 등의 동영상상을 CD로 제작해 국내 최초의 UN 기구 설립이라는 역사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백서는 각 언론과 주한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앙부처 등 국제관련 부서에 배부될 예정이며 국제기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앞으로 또 다른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문의 _ 시 과학기술과 440-3984

경제자유구역소식

인천공항, 물류시설 개발 협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21일 미국계 물류시설 전문 개발업체인 AMB 프로퍼티사와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내 2만여평에 대한 ‘물류시설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AMB사는 4,200만 달러를 투자해 올 12월~2008년 3월 동안 첨단물류시설을 완공해 프롤로지스, DHL 등 다국적 물류회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AMB는 전세계 공항과 항만에 1,094개의 물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물류기업 2,700여 업체가 이곳에 입주하고 있는 다국적 물류시설 업체다.

송도 광대역통합망서비스 제공

지난 7월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보통신부의 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송도국제도시 송도동 KT망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대역통합망은 음성, 화상, 데이터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하나의 공통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 음성과 데이터가 융합되어 하나의 통신망으로 제공된다.

나노테크닉스와 MOU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월말 국내 첨단제조업체인 나노테크닉스(Nano Technics)와 탄소나노섬유 제조공장 및 R&D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나노테크닉스는 인텔 회사인 인텔캐피탈과 총 150억원을 공동투자해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내년 하반기까지 제조공장과 연구개발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탄소나노섬유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인 미개척 연구개발 분야로 반도체 전자산업, 항공우주산업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첨단 신소재이다.

국제도시, 문화인프라도 세계수준으로

경제청은 첨단국제도시에 걸맞는 전략적인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8월8일 'IFEZ문화시설 건립·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도지구의 경우 호수, 해양, 수변형 워터프론트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센터, 콘서트홀 등 도심형 문화센터를 조성한다. 청라지구에는 첨단레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

설과 연계한 테마형 복합문화시설을 개발하며 영종지구에는 친자연, 녹지를 포함하는 야외체험 공간개념 부각, 갯벌공원, 야외갤러리, 음악당 등 외래관광객용 휴양문화 공간시설을 건립한다. 우선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시설을 ‘앵커문화시설’로 선정해 전략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또 송도문화센터 주변을 문화예술지구로 지정하는 등 문화벨트화 사업을 추진한다.

모건스탠리 3억5000만불 투자

세계 최대 투자금융회사인 미국의 모건스탠리사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 3억5000만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지난 8월9일 NS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사)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관련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올 연말까지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일사에서 제시한 링크지 프로그램 중 1단계 프로그램에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링크지 프로그램에는 1천103세대의 주거단지를 비롯해 65층 아시아트레이드타워, 국제호텔, 업무용빌딩, 골프장 등의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이번 투자는 173만평 규모의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NSC가 처음으로 외국자본 직접 투자를 이끌어 낸 것이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시의회 소식

여성의원, 여성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가져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숙, 이명숙, 김소림 의원은 지난 8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 YWCA,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인천여성의



전화 등 인천지역 여성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마련과 바람직한 여성정책 방향 논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인천의 여성단체 및 의회가 협력해 인천여성 정책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모두 노력하고, 이번에 개최한 정례회의 내용이 앞으로 인천여성들의 발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제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인천광역시의회 박창규 의장은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여성의 참여와 도움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계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소식

전국 최초의 ‘지식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8월10일 지식관리시스템(www.ice.go.kr:8080)을 개설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다른 중앙부처나 기관의 내부직원 중심의 지식관리 형태를 벗어나 고객지향적인 요소가 가미된 ‘교육지식 찾아주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나 민원인이 교육에 관한 정보, 논문, 지식을 요구할 때 지식도움이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전국 최초의 행정서비스이다. 또 지식관리시스템 안에는 교육감 제공자료, 교육관련 논문, 교육 보도자료, 혁신자료 등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찾는 모든 이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청은 시민들과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혁신나눔방(www.ice.go.kr/ivt)을 개설하고 교육청 1층 교육사랑방에 자유제안 접수처인 ‘내가 교육감이라면?’을 설치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의 _ 인천시교육청 혁신기획과 420-8329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겠습니다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노경수 부의장을 만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해결이 가능하건 불가능하지 않건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흘러들지 않는다는 노 부의장은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의회 부의장이라는 호칭보다 ‘민원해결사’로 통하는 노 부의장을 만났다.



부의장이란 중책을 다시 맡으셨습니다. 새롭게 의정활동에 임하는 심경은 어떠신지요?

의회의 입법활동, 견제·감시기능 등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의장단이 각기 역할이 있는 만큼 지금의 초심을 잃기만료까지 이어나가 화합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특별히 역점을 두고 힘 쏟을 의정활동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인천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이루어야 할 것이 많고 무엇보다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인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꼭 훌륭하게 이뤄내고 싶습니다. 중구를 비롯한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4대 의회에서도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심의 주요 기능이 신도시로 이전되면서 소외된 구도심권의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이 가능토록 전담부서 설치 등 의회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연계된 영종신도시 인프라 확충 문제 또한 역점을 뒀야 할 사업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신도시 조성은 장기적으로 이뤄고 있으나 영종신도시는 단기간에 형성되다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영종신도시에는 이미 공항종사자 등 주민들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교육·복지·환경여건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이 2007년 3월에 계약만료되는데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두 번이나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들과 265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시 집행부에 대한 의회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인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프로필

3대 중구의회 의원 / 인천광역시의회 제4대 2기 제2부의장 / 인천광역시 보디빌딩협회 수석부회장 /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회 이사 / 인천광역시 중구 민주평통자문위원 / 인천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문화향기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고진섭 부의장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인천에서 시민모두가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분야에 힘을 기울이는 의회내의 ‘문화통’으로 꼽힌다. 지난 회기동안 문교사회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진솔하게 말한다.

이번 5대1기 부의장으로 역점을 두고 계신 의정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으로서 대외적인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의회 내부의 결속을 다져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외에 동료의원들과 수시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개별의원들 사이에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의회의 화합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는데 한 몫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펴가는데 특별한 신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15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과 항상 같아하며, 시민의 참 뜻을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 발전을 위해 시의회 활동이 중요한 때입니다. 어떤 분야에 주력하실 것인지요?

인천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구도심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개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교통·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문화 인천’이 되도록 계속해서 문화·예술분야에도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께 봉사할 기회를 주신 265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프로필

부평구의회 1·2·3대 의원 / 인천광역시의회 제4대(2기) 문교사회위원장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동아리연맹 인천부총재(현) / 인천광역시 체육회이사(현)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이사(현)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회 집행위원(현)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역사(歷史)가 바뀐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모습이 달라진다. 우리시는 도시재생사업 시발점을 1거점인 내항과 2축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기준으로 설정해 그 주변 도시의 활성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한 도시재생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경인전철이 지나는 도원·제물포·도화역을 중심으로한 도시재생사업을 알아본다.

글·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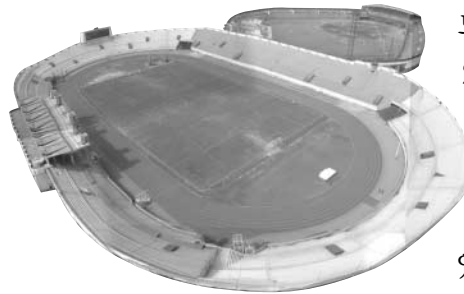


도화지구 일대 모습

이번 정차역은 ‘웰빙타운 도원역’입니다

한국 야구와 축구의 시발지가 인천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느닷없이 ‘구도(球都)인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송의운동장이 인천 스포츠역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1934년 건립된 송의운동장은 문학경기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지난 20세기 인천 스포츠의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각종 전국 체육행사를 치르는 유일한 장소였으며 야구팬들의 오랜 기억속에 남아있는 낡은 일기장 같은 아련한 추억의 장소이다. 그런 송의운동장의 역사적·지역적 특색을 살려 우리시는 도원역을 중심으로 웰빙타운을 조성한다.

노후화된 시설로 이용률이 낮아진 2만7천263평(9만 127㎡)규모의 송의운동장(남구 송의동 180-6)을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개발한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대비해 2만석의 축구전용구장과 개방형 야구장을 만들어 우리시 체육을 육성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다목적 광장과 공원 등을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또 도원역과 송의운동장을 중심으로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와 스포츠 브랜드 몰 등의 상업공간이 들어서며 다목적 공연장과 커뮤니티 시설이 모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이렇게



도원역세권을 중심축으로 도원 뉴타운과 주변 구도심을 체육기능과 주거·상업기능을 조화시켜 24시간 활기찬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우리시와 도시개발공사는 특수목적회사(SPC)설립을 위해 오는 10월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3천1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09년 말까지 완료한다. 우리시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먼저 착공되는 도원 뉴타운건설은 다른 재생사업들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물포 Blue Zone Street에서 꿈을 키운다

제물포 역세권은 인천의 전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주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대표적 구도심 중 하나다. 실제로 2층 이하의 건축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각각 약 75%로 그 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다.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구도심의 재생사업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30만1천522평(99만6천770㎡)규모의 제물포 역세권(남구 도화동 272일원)은 복합역사를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와 전문학원 등의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초고층 주상복합, 오피스타워, 패밀리 레스토랑, 특화상가, 전문상가 등이 들어선다. 무엇보다 제물포역세권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특성을 고려해 재생사업이 이뤄진다. 전문학원 및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학교주변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가 조성되는 Blue Zone Street이 조성된다. 또 뮤직홀, 전시공연장, 보행광장, 교차로공원, 야외카페 등의 시민휴식공간이 마련된다. 수봉공원 주변에 고급형 주거단지를 세우고 경인



도원웰빙타운 조감도



제물포 역세권 재생사업 조감도



희망을 묻어버린 땅

글 • 김성중(인천대학교 교수,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매우 큰 관심과 기대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현재 그 곳에는 3가지가 심히 썩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첫째, 승계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마인드와 습관이 썩어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근로자들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임하는 자세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지어는 교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태하고 해이해져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으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도했다. 작업에 열심을 다해야 할 일터에서 한두 명만 일하고 예닐곱은 구경만 해도 되는 주인이 없는 것 같은 사회, 열심히 일해도 별다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습관화 되어 있는 나태함은 인간으로서 경쟁력마저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다.

둘째, 공장·건축물과 시설물들이 썩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평소 기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보아왔던 사항이며, 애당초 예측한 대로 건물이나 시설은 모두 폐기하고 재건할 계획이었으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셋째, 환경이 썩어 있다는 것이었다. 기업인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특히 토양과 하천이 심하게 오염되어 썩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서독 출신의 기업인들 정서로는 그곳에 공장을 세우고 기업할 용기가 도저히 나질 않는다는 것이다. 동독인들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 등을 반세기 동안 빈터만 있으면 마구 버렸다. 기업인들이 꿈꾸던 땅에서는 이것들이 썩어 유독성 가스와 심한 악취를 방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렇게도 꿈과 기대를 가지고 동독에서 기업을 경영하고자 했던 그들의 꿈은 산산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 인터뷰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였다. 근시안적인 인간들은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시킨다. 하지만 환경이 한번 오염되면 그것을 되돌리기 어렵다.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재앙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희망을 노래하며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환경을 무시하지 말자. 큰 코 다친다.

독일에서 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독일이 통일되고서 얼마쯤 지났을 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서너 명의 기업인들이 출연해 사회자와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사회자가 “왜 기업의 확장을 위해 불모지와 다름없는 동독 지역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 고 질문을 했다.

그들은 통일이 된다면 낙후된 동독 지역에 들어가 사업을 확장하여 동구권을 석권할 것이라고 평소에 그렇게도 꿈꾸어 오던 기업인들이었다. 통일이 되면 희망을 품고 들어갔어야 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도통 그 곳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뒷집만 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을 실행해야 하는 관계자들이 답답해 하는 것을 아는지라 나 또한 그 인터뷰에 관심이 갔다.

독일이 통일되는 광경을 보고 흡수통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세계 제 2차 대전에서 패망함으로 동과 서가 나뉘게 되었고 갈라지면서 ‘통일독일’을 꿈꾸며 준비해온 이들인데도 막상 통일이 되니 여기저기에 할 일들이 무척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매우 분주하게 일하는 정부의 이모저모를 볼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국영화된 많은 자산들을 민영화하는 일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국영화된 것은 아니다. 2차 대전 후 공산 진영이 되면서 모든 국민은 재산의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정부에 일방적으로 귀속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한 일은 누구든 본인이나 본인의 조상 소유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인정하고 소유권을 이양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자산들은 민간에게 매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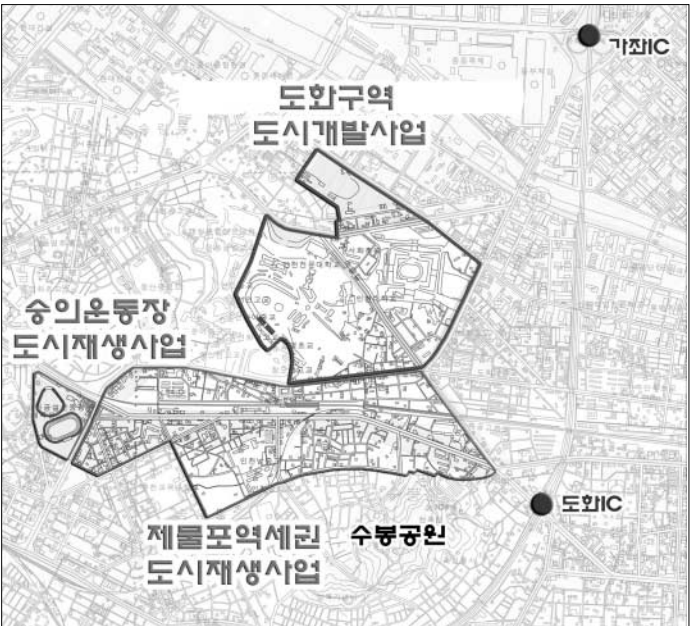
기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매우 낮은 매매가임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 줄 것이라 했다. 단 근로자들을 승계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었다. 또 다시 부족한 개발비는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혜택도 줄 것이라 했다.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여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인터뷰 내용에서 밝힌 기업인들의 대답은 매우 의외였으나 아주 단호했다. 이들이 동독 지역 개발에

전철로 단절된 제물포역 남북측을 입체적으로 연결해 동일 생활권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2조1천732억원을 들여 2008년말 사업을 시행해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시는 구도심 개발로 오랫동안 침체된 상권도 되살리고 경제자유구역과 기존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균형발전을 모델로 도시재생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교육단지에 뿌리내리는 거주단지, 도화지구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진다. 선인학원이 위치한 남구 도화동(43-7일원) 88만1천47㎡(26만6천517평)가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우리시는 대학이전 부지를 활용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단지로 꾸민다. 구체적으로 전체 43.7%에 달하는 11만6천420평이 아파트(9만6천165평)와 주상복합(2만11평), 준주거지(244평)로 개발된다. 또 공원과 녹지는 전체 면적의 13.4%(3만5천736평)이며 문화시설 930평이 들어선다. 인천대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대신 인천전문대(6만6천917평)는 확장 리모델링된다. 도화지구는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2012년까지 개발 총사업비 8천113억여원을 투입해 미래형 주거단지로 건설된다. 도화지구 역시 도화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새단장을 통해 구도심의 묵은 때를 벗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역세권 개발 지도



도화지구 재생사업 조감도

역사에 역사를 묻다

제물포=인천?

인천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제물포가 흔히 쓰이는데 원래는 지금의 중구 중앙동과 항동 일대에 있던 작은 포구였다. 1883년 제물포를 통해 개항이 되면서 인천은 물론 우리나라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대에 따라 그 지명의 범위가 중구와 동구로 확대되거나 문학·관교동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지금은 남구 도화동 경인전철 역명이 ‘송의역’에서 ‘제물포역’으로 잘못 개칭되면서 도화동 일대가 제물포로 불려지고 있다.

도화동 명칭의 유래

도화동은 광복 이후에 ‘화동’과 ‘도마동’이라는 두 마을의 첫 자를 따서 불리기 시작했다. 화동(禾洞)은 처음 ‘베말’에서 유래됐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 ‘벼마을’이라는 뜻이며 당시 쑥골(숫골)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다. 한편 도마동(道馬洞)은 경인도로가 개설될 당시 말이 지나다니는 다리가 있는 마을이라해서 ‘도마다리말(도마교리)’이라고 했다가 도마동으로 불렸다는 설이 있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笑指門前一條路(소지문전일조로)
纔離山下有千岐(재리산하유천기)

웃으며 문 앞 외길을 가리키니
겨우 산 아래에서 천 길로 갈라지네

신라 시대 학자이자 최고의 문장가인 최치원의 한시다.

“시골집 마루에 앉은 시인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그가 웃으며 찌러온 밖 외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을 따라 눈길을 던져 보니 이게 웬 일인가? 바로 앞 산 아래에서 외길은 천 갈래나 갈라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길은 지리적, 물리적 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생의 길을 읊고 있다. 인생이 단순한 외길처럼 보이지만 한걸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수많은 갈림길에 놓여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 누구나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중요하고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2시 정각, 용현벌에 포탄 떨어지다

글·사진제공 | 조우성 (시인·인천시 시사편찬위원)

9월 15일 오전 11시경. 팔미도 앞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연합군의 ‘그라만’ 전투기 편대가 인천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었다. 북한군 포대가 있는 월미도와 도원산(지금의 광성고등학교 자리)에 집중적으로 기관포를 퍼부었다. 북한군도 이에 응사해 무수한 총탄이 인천의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상륙작전을 피해 교외로 피란 나온 시민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인천 앞바다에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는 연합군의 군함들을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워했다.

12시 정각. 귀를 찢는 듯한 함포의 굉음과 함께 용현동 유류창(油類廠 속칭 히타치) 근처 해변가에 커다란 포탄이 떨어지고, 모래 먼지와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전투는 오후 내내 계속되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울목동과 도원동 일대의 초가집들과 시가지 건물들의 타오르는 불길에 하늘이 온통 시뻘겋게 물들었다. 그 불길은 ‘두 달만의 인천 탈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내 집, 우리 동네, 우리 고장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들려오고, 조명탄이 수없이 터져 올라 어둠을 대낮처럼 밝히는 가운데 송학동 인천경찰서에서는 또 다른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후 7시경. 박기분을 비롯한 인천경찰서 경비원 3명과 사회안전부 요원들은 유치장 2층에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 102명에게 마루바닥에 2열로 앉을 것을 명령했다. 수감자의 신분은 군인, 경찰, 시의원, 목사, 기자, 교사, 지역 유지

등이었는데, 이들은 한 방에 약 15명씩 갇혀 있었다. 30분 후, 다시 2층으로 올라온 박기분 등은 20여 분간 무차별로 이들에게 총을 쏘아대는 황급히 달아났다. 연합군이 경찰서 부근까지 진격한 때문이었다. 일순간에 53명이 학살당했던 것이다. 중경상자는 21명, 생존자는 불과 26명이었다.

그 시각, 월미도에서는 북한군의 저항이 계속됐다. 2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군은 소월미도에 설치돼 있던 기관포 25좌, 120밀리 포 5문, 월미도의 해안 중포 20문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북한군은 무슨 영문에서인지 상륙 작전을 앞두고 오히려 제18사단을

천안으로, 제9사단 제87연대와 제849전차포연대 병력을 김천 지역으로 빼내가는 오판을 했고, 서해안방어사령부 예하 제226독립해병연대 제3대대 1개 중대와 제918포병연대 1개 중대 등만 남아 있었다.

8시경, 대부분 훈련도 채 받지 못한 소년병들로 구성된 북한군은 마침내 참호나 섬 안을 가로지르고 있는 터널 등에서 사살되거나 포로로 붙들려 나왔고, 이를 신호로 한국 해병대와 연합군은 인천역과 그 왼쪽의 외국인 묘지를 지나 만국공원(지금의 지유공원)을 잇는 주요 거점 등을 점령해 나갔다. 시가전이 시작된 것이다. 피아간에 전사자가 속출하는 격렬한 저항이 계속됐으나 16일 새벽 북한군은 인천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사정을 북한의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사’는 ‘적은 1천 대의 비행기 엄호와 3백여 척의 함선과 미 10군단 관하의 미 해병 제1사단 미 보병7사단 및 특수공병여단 외에 국방군까지 포함하여 5만여 대병력을 동원 인천상륙작전을 전개했다.(중략) 아군의 기관총수는 방파제에 기어오르는 적군 부대에 기습 사격을 가하여 이를 격퇴했다. 인천시가에서는 9월 15일 밤 맹렬한 시가전이 전개되었다. 인천방어부대는 16일 새벽 인천 시가로부터 철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에서 아군이 입은 피해는 전사 20명, 부상 174명, 해방불명 1명이었다. 이는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버금가는 작전 규모로 보았을 때 극히 미미한 희생이었으나, 승전의 의미는 실로 중차대한 것이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일 인천상륙작전을 실패했다면 백척간두에 서 있던 낙동강 전선은 무너지고, 그것은 곧 한반도의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계속 됐다. 승산이 없는 ‘도박’이라던 인천상륙작전은 불과 하루 만에 종지부를 찍었으나, 국군과 연합군이 주안, 부평, 김포, 소사, 영등포를 거쳐 서울을 수복한 것은 그로부터 13일이 지난 9월 28일이었다. 문자 그대로 혈투가 전개됐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두만강까지 진격한 아군은 끝내 중국의 명분 없는 전쟁 개입으로 후퇴를 거듭했고, 국민들은 3년여 간의 길고 긴 악몽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화염에 싸인 인천
1950년 9월 15일 정오, 팔미도 해상의 군함들이 일제히 함포 사격을 시작했다. 시가지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상륙 장면
병사들이 인천항 방파제에 오르고 있다. 상륙 부대가 사용한 것은 끝에 쇠고리를 단 나무 사다리였다.



남북의 독전 포스터
남북은 전쟁을 독려하는 포스터 전(戰)도 벌였다. 북한군은 ‘적들을 일층무자비하게 소탕하라’며 낙동강 전선 돌파에 안간힘을 썼으나 인천상륙작전으로 패퇴했다.



추억

앗, 나도 이렇게 활달하고 용감했었나? 20년전 회사 야유회 가서 장기자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사진을 꺼내보니 웃음이 납니다. 어느새 40대 주부가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니 엄마도 이럴때가 있었냐고 묻더군요. 가운데가 엄마고, 인기상을 받았단다.

이미순 (서구 석남동)

미스코리아 수영복 심사

사진을 찍는다고 잔뜩 긴장한 남자친구와는 달리 장래 희망이 미스코리아라는 우리 딸 민희. 수영복 심사에서 이정도면 뽑힐 수 있겠조?^^

김민영 (서구 당하동)



신도행 선상에서

무더웠던 지난 여름, 바람이나 쐬며 가볍게 집 밖을 나와서 열매결에 신도행 배를 타게 되었다. 예정에 없던 여행이라 별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웬걸!~ 그토록 열광했던 '폴하우스'와 '슬픈연가' 세트장이 있는게 아닌가. 그 날 하루는 정말 우리에게 행운의 날이었던 것 같다.

한경숙 (계양구 병방동)

커블 그림자

뜨거운 태양 빛이 우리 등을 내리쬐며 여친과 함께 그림자 놀이를 했습니다. 해가 지더라도 그림자는 영원히 남아있길 바랍니다.

김경환 (남구 송의4동)



내 모자 돌려줘~

양배추인형 : 친구야, 내 모자 돌려줘!
아기 : 친구끼리 정말 치사하다. 나도 엄마한테 예쁜 모자 사달라고 해야지. 흠!

최승희 (서구 검암동)



맨손으로 월척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를 소개합니다. 허리까지 빠지는 물속에서 낚시도 아닌 맨손으로 월척을 잡고 기뻐하시는 저희 아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빠가 물고기를 잡으실 거라고는 기대도 안했는데 저렇게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지 뭐예요. 우리 아빠 최고 ~~~~

이성준 (부평구 십정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아이고 요(腰)놈의 허리가 또...

글 • 이무일 (인천시 한의사회 홍보이사, 고운몸한의원 원장 891-0288)

50대 중반의 이모 씨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밤에 이불도 덮지 않고 선풍기 켜고 평상시 좋아하는 폭신한 침대로 멀리하고 거실 마루바닥에서 시원하게 잠을 청했다. 배가 부르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그는 잠자기 전에 차디차게 얼려놓은 맥주와 푸짐한 족발을 배부르게 먹었다. 다음날 선선한 아침 바람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도대체 허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정형외과에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찾아갔더니 허리근육이 약해서 그렇다며 다 나오면 운동이나 열심히 하란다. 일주일에 3일은 등산을 하는 그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허리를 쓰지 못하고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제법 있다. 한의학에서는 현대에서 말하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그 원인과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요통을 여러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이모씨의 경우 발생한 요통은 풍(風), 한(寒), 식적(食積) 요통이 같이 온 경우로 볼 수 있다. 풍(風)요통은 오랫동안 찬 바람이나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통증이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다리까지 뻗뻗하게 당기면서 수축되는 특징이 있다. 한(寒)요통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추운 방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또 추운 곳에 오래 있을 경우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무거우며 따뜻한 곳에 있으면 통증이 덜하다가 추우면 통증이 심해진다.

체증으로 소화가 안되거나 만성위염이 심할 때, 혹은 과식을 하면 허리가 뻣뻣하게 아파오는 것이 바로 식적(食積)요통이다. 이런 풍, 한, 식적 요통의 경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과식이나 혈행장애 등 우리 몸의 대사를 방해하는 부산물을 없애주는 오적산(五積散)이라고 하는 치료처방과 뜸이나 기타 온열치료로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다.

흔히 순간적으로 허리를 삐끗했다고 표현하는 좌상(挫閃)요통은 쉽게 치료될 수 있으나 자주 허리가 아프면 신장이 허하여 허리근육이 약해진 경우가 많으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내부 장기 중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양기가 부족해져 허리근육과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체중을 지탱하기 힘들다. 이때 나타나는 신허(腎虛)요통도 대표적인 한의학적 관점의 요통이다. 신허요통은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많이 아프고,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더 아프고, 허리를 잘 펴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담음(痰飲)요통은 흔히 담 걸렸다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뚱뚱한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비만형 요통이다. 이런 분들은 허리보다 복부지방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분해침치료나 한방비만클리닉을 추천할만하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지면 누구보다도 먼저 허리로 일기예보를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통을 습(濕)요통이라고 한다. 습열(濕熱)요통은 요즘 같은 여름, 특히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습기와 더운 열기가 함께 몸속으로 들어와서 요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허리가 화끈거리고 무거우며 몹시 아프다. 이런 습으로 인한 통증에는 울무가 효과적이다.

요통은 통계적으로 보면 전 인구의 80%가 경험해 본 적이 있고 현재 전체 인구의 20~30%가 요통에 시달리고 있는 흔한 질병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양호한 진행과정을 보여 2개월 내에 낫게 되지만 때로는 만성 요통으로 발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허리디스크나 기타 요통의 원인을 허리 자체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던 분들이라면 허리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생활패턴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원인을 찾아본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인증’ 받은 시설에 우리 아이 믿고 맡겨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8명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듯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우리시가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펴오고 있는 가운데 획기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에 38개소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3개소는 중도 포기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35개소가 참여해 모두 통과했다.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에 참여하면 평가 과정을 통해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진다. 또한 보육시설을 선택해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영유아들에게는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평가인증은 참여 신청, 자체 점검, 현장 관찰, 인증심의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1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는 데에는 약 9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평가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천광역시 평가인증제 시행지원

-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전문가를 선임하여 보육시설의 신청에 의해 안전관리·일상 양육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장학 실시
- 2006년도 조력 시설수 : 300개소 목표
- 모범보육시설을 선정하고 시설을 개방하여 우수사례 파급 및 모형제시 : 2006년도 모범보육시설 7개소 선정

문의 시 여성정책과 (440-2680)



2006년도 인천광역시 평가인증 참여현황		
가수	접수 기간	신청시설
1기	3.2(목) ~ 3.8(수)	62
2기	4.1(토) ~ 4.8(토)	48
3기	6.19(토) ~ 7.8(토)	14

2005년도 평가인증 통과 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장	연락처
강화어린이집	김복희	937-1011
엘림놀이방	홍정숙	257-1384
근로복지공단인천어린이집	안명숙	563-1963
두루미어린이집	계효경	429-6395
나래어린이집	이상우	822-7778
이웃사랑어린이집	조선경	504-5992
무궁화어린이집	차금선	423-5837
인하어린이집	송경희	462-2255
한솔에듀케어어린이집	김윤이	263-4662
애향어린이집	장명숙	863-7441
청천동어린이집	허현주	505-5606
중부어린이집	곽경희	528-4022
계산영아전담어린이집	고현숙	542-7874
인천남동구청어린이집	조연화	469-7771
백암어린이집	전정배	867-7555
공작어린이집	최영미	883-5766
동구사랑어린이집	이현미	766-0094
신현어린이집	정수아	577-4644
별초롱어린이집	최경숙	862-1154
인천삼성어린이집	김화숙	438-0822
석남어린이집	장선이	582-9854
열린놀이방	최선화	891-0972
국민연금부설어린이집	김영분	442-8853
우석어린이집	김진숙	567-6677
살롬에덴 어린이집	김득린	502-4688
장미어린이집	강혜원	766-9684
대동어린이집	이광남	525-1900
세실프리스쿨	이춘자	505-6040
가정어린이집	강현자	566-3824
백합어린이집	서경희	766-4010
현대동화나라어린이집	박정애	425-7773
해밀어린이집	박영숙	554-0354
애플어린이집	김자경	817-1957
팅커벨어린이집	이재례	831-1464
해솔어린이집	김재순	812-2738



4일간의 ‘록生록死’

글·정경애(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정식(자유 사진가)

우리시가 기획해 지난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송도에서 열린 펜타포트록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곳은 날씨 탓에 출발은 썩 순조롭지 못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날 부터 하루에 235mm라는 폭우가 쏟아져 록페스티벌이 열린 송도행사장은 이미 진흙탕이 되었다. 하지만 폭우에 대비해 호주에서 공수해온 스틸 트러스 스테이지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에도 끄떡없었다.

장대비에 ‘요지부동’ 이기는 관객들도 마찬가지. 이미 갯벌로 변해버린 송도벌을 찾은 2만여 명의 관객은 폭우와 행사 이틀째부터 찾아온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 위의 밴드와 하나가 되었다. 이번 록페스티벌 성공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록을 사랑하는 수많은 관객들. 250개가 넘는 텐트가 야영장을 가득 메웠고 2천여 명의 캠핑촌 사람들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록과 함께 살고 죽겠다는 태도로 3박 4일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관중석을 지켰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왔다는 고등학생, 관람을 위해 휴가를 냈다는 군인, 황금같은 여름휴가를 ‘록’을 위해 쓴다는 직장인... 이들이 바로 록페스티벌의 주인공이었다.

오프닝무대의 록 밴드 예 예 예로부터 마지막 날 피날레를 장식한 프란츠퍼디난트까지 무대에 오른 밴드들은 아티스트의 몸짓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관중들의 호응에 보답이라도 하듯 혼신의 힘을 기울여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블랙아이드피스와 플라시보의 무대가 펼쳐진 열정적인 무대를 향해 2만여 명의 관객이 뿜어내는 열기는 폭죽과 함께 송도의 밤하늘을 뒤흔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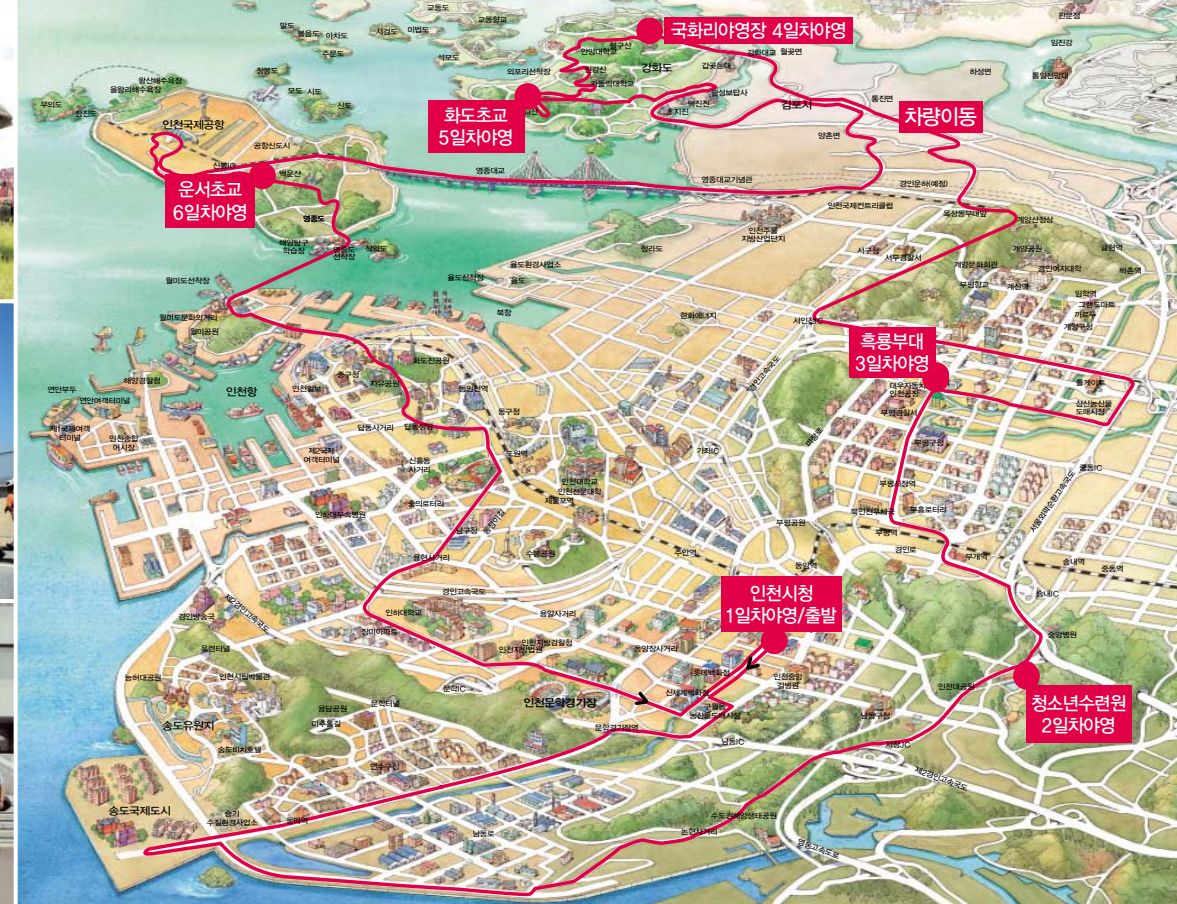
인천펜타포트록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 록페스티벌이 뿌리 내리고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행사였다.



‘가시는 걸음 걸음’ 인천을 담고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인천바로알기 종주’는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인천의 산과 바다와 하늘을 자신의 발로 걸으며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고, 인천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지난 2001년 첫 번째 종주가 시작된 이래 올해는 우리시 주관으로 여섯 번째 종주 사업이 펼쳐진 것이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인천바로알기 종주단



Scene1 인천 땅 살살이 밟기

조용한 일요일 오후, 등에 배낭을 메고, 손에는 짐꾸러미를 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시청으로 모여들었다. 엄마와 함께 참여한 청소년, 선생님과 함께 온 아이들. 대회의실에 모인 이들은 발대식을 겸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번 종주에 참여한 사람은 일반인을 포함한 참가자가 97명, 팀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사람 20명 등 모두 117명이었다. 참가자들은 8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활동을 했고 각 조는 대우자동차산악회 등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이 팀장을 맡아 단원들을 이끌었다.

종주단을 이끄는 이동렬 단장은 “인천바로알기 종주는 인천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학생들은 90% 정도가 부모님께 등 떠밀려 참가하지만 끝나고 나면 모두들 꿈만 같다고 하며 뿌듯해 합니다.”며 종주사업을 설명했다.

7월 31일 아침 9시 시청에서 간단한 출정식을 가진 후 170km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관교동과 문학종합경기장을 지나 송도국제도시 갯벌센터 홍보관을 둘러보는 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후에는 송도해안도로를 따라 소래

해양생태공원을 둘러보고 인천청소년수련관에 도착해 배낭을 내려놓았다.

종주 이틀째에는 부평재래시장과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삶의 체험 현장’을 경험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경매장을 견학할 때는 중도매인들이 단원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 등 격려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평소에 많이 걷지 않았던 학생들이 강행군을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절룩거리며 걷는 대원이 있는가 하면 중간 중간 대원들의 눈가엔 이슬도 보이기 시작했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사람은 아직 없다. 무거워진 발을 이끌고 흑룡부대에 도착해 부대의 배려로 시원하게 씻기도 하고 호텔급의 숙소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

Scene2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길

다음은 산과의 싸움이었다. 아스팔트 걷기에 지친 단원들은 내심 산길을 걷는다는 것에 즐거워했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 철마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땀으로 범벅이 된 단원들은 철마산과 계양산을 오전 안에 넘어야만 했다. 점심 식사 후 차량을 이용해 민족의 혼이 서린 강화도에 도착해



고인돌에서 유적지를 돌아보고 다시 세 번째 산인 고려산을 넘었다.

힘든 산행에 지친 대원들 중에는 종주를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속속 나타났다. 설정은씨(32·남구 용현5동)도 그 중 한 사람. 공부방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설씨는 갑상선 종양을 앓고 있으면서도 학생 7명과 함께 이번 종주에 참가했다.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조만 뒤처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꾸만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은 팀장들과 학생들이 있었기에 완주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김영빈군(부원중 1)은 ‘하루에 산 3개 등반. 이걸 나의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다’고 종주기에 적기도 했다.

산행은 종주 나흘째에도 계속됐다. 단원들은 혈구산과 마니산까지 등정(?)을 하며 그야말로 인천땅을 살살이 밟았다.

인천 종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인천국제공항. 강화에서 차량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닿은 종주단은 국제공항 홍보관을 둘러본 후 끝도 없이 이어진 영종도 해안도로를 걸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아스팔트길은 그나마 한 점 바람이 불어주어 단원들의 지친 발걸음을 달래주었다.

Scene3 물집은 터져도 성취감은 남는다

종주라고 해서 무작정 걷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첫날 밤 ‘왜 인천인가’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해양생태공원을 둘러본 날은 ‘인천의 갯벌과 철새’를 주제로 한 교육이, 군부대에서 하룻밤을 보낸 날에는 ‘인천퍼즐 맞추기’ 등을 하며 종주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만화로 인

천을 그려보기도 하고, 풍물 장단을 배워 보는 등 저녁마다 알찬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마지막 밤에는 ‘인천 알아보기 도전 골든벨’과 위로의 공연무대가 펼쳐졌으며 각 조의 장기 자랑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마지막 코스는 인천 다시 보기. 영종도에서 배편을 이용해 월미도에 닿은 이들은 갑문을 견학한 후 차이나타운을 지나 문학산을 올랐다. 산을 내려오니 어느새 시청이 코앞이다. 시청에 도착한 종주단은 개신장군이 따로 없다. 시청에 닿을 즈음 단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로 서로를 격려했으며 마중을 나온 부모님들은 박수로 자랑스런 딸과 아들을 맞았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왔다는 조남식군(남동구 고잔동)은 올해로 네 번째로 종주에 참가한다는 베테랑이다. “부모님의 권유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참여했어요. 할 때는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정말 뿌듯해요. 새 친구를 사귄 수 있고 우리 지역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이 좋아서 기회만 되면 항상 참가하는 편이에요”라며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170km의 대장정은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천 땅 구석구석을 밟으며 인천의 숨결을 ‘발’로 느끼고, 저녁마다 이어진 강의를 들으며 ‘머리’로 받아들이고, 동료들과 함께 ‘가슴’으로 하나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이 종주단원들의 온 몸속에 고스란히 새겨들었을 것이다. ☀

두 발로 느낀 인천의 숨결

지난 8월 5일,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인천바로알기종주가 6박 7일의 장정을 마쳤다. 올해 대학생이 된 나는 자원봉사자로서 종주단의 일원이 되어 학생일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종주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종주사업에는 170km나 되는 장도에도 불구하고 최고령의 정명환 전 남구청장님부터 최연소자 열한 살 정현이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모두 무사히 완주했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장마가 막 훑고 지나간 후라서 혹 날이 꺾이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무덥지는 않을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하늘은 쾌청했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었다.

종주 내내 되도록 여러 단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함께 걸었던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들에게 종주단에 참가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뭣 하러 그런 것을 하느냐?’는 조소를 받았다고 한다.

종주단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왜 우리가 인천을 걷는 지’부터 시작해야 할 듯싶다. 종주단의 취지를 두 단어로 나타내자면 ‘인천’과 ‘걷기’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마땅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워야 하듯이, 인천에 살고 인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자기 고장 인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주를 통해 인천에 대해 배우고 인천을 바로 알려는 것이다. 이번 종주 중에는 송도 국제 신도시 홍보관, 삼산농산물시장, 인천 갑문 등을 견학함으로써 잘 모르고 있었던 인천의 모습과 미래의 발전상까지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일 저녁 열린 강의에서는 인천학 연구소의 김창수 소장과 인하사대부고 천영기, 신인선 선생님을 초청해 인천과 강화의 역사, 문화 등을 폭 넓게 배울 수 있었다.

이제 인천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니 그럼 인천 사람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으로 족하다면 우리는 교실을 나서서 인천을 걸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서 인천을 안다고 한 것은 인천을 ‘머리’ 속에 남

긴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걷는 것은 인천을 ‘가슴’ 속에 새기기 위해서이다. ‘집-학교-학원’ 밖에 모르는 아이들에게 인천은 막연히 ‘내가 사는 고장의 이름’쯤으로 여겨질 뿐이다. 하지만 뜨거운 햇볕을 머리에 이고 땀을 함땀 쏟으며 발바닥이 너털해지도록 인천의 도로와 산천을 걷는 가운데 인천은 소중한 삶의 공간으로 가슴에 와 닿게 되었다.

종주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생들에게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공부에 쫓기다가 이처럼 가슴으로 느끼는 배움을 얻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다른 학교, 다른 나이의 친구들과 만나 하루 종일 함께 걷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잔다는 것도 무척 소중한 경험이다. 힘들어서 숨이 턱까지 차면서도 서로 끌어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나도 재작년에 4회 종주단에 참가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한 번 종주했던 단원들이 이듬해 다시 참가하게 되는 것은 다 이런 까닭이 아닌가 한다.

첫날 발대식 후 마련된 단원들의 자기소개 시간에 들으니 ‘다들 인천에 대해 배우겠다는 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결심을 가지고 참가하였구나.’하고 느꼈다. 마지막 날, 시청에 입성하는 것으로 종주를 마치고 환호를 올리는 가운데 저마다 소망하던 바는 이루었는지 모르겠다. 6박 7일간 동고동락했던 단원들 모두 건강하고 도모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단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단장님 이하 임원들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나의 은사이신 천영기, 신인선 선생님을 비롯하여, 종주단을 위해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기꺼이 찾아와 강의를 해주신 여러 강사들께도 감사드린다. ☀



글 · 김원영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1학년)



인천 음식 요리조리 | 강화 더리미 장어

강화도의 힘, 더리미 장어

글·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정식 (자유사진가)

장어 굽는 마을 더리미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는 동안 폭염으로 몸은 지칠대로 지치고 입안은 까칠해져 식욕을 잃은 지 이미 오래. 배불리 먹어보는 호사는 아니더라도 떨어진 입맛을 되찾아 보려 든 강화 더리미 장어마을을 찾아보자. 강화군 선원면에 위치한 더리미 장어마을은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널리 소문난 동네다. 강화를 찾은 여행객들이 우연히 더리미 장어를 맛보게 된다면 없던 식탐도 생길 터.

강화대교를 건너 바로 좌회전해서 차로 5분정도 달리면 더리미 장어마을이 보인다. 1970년대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더리미는 한강 민물과 서해 바닷물이 뒤섞이는 곳이다. 흔히 알고 있듯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 육지를 향해 바람을 몰고 오는 것을 가리켜 풍천이라고 하며

이곳에 서식하는 장어를 풍천장어라 한다. 그래서 이 마을 앞바다인 염하에는 예로부터 먹을거리가 풍부했다. 장어를 비롯해 웅어, 황복 등이 흔히 잡혔다니 귀하디귀한 회유성 어종의 보고였다. 이렇게 해안가를 배경으로 식당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지금같은 장어마을을 형성했고 강화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당시 장어는 11월이나 되어야 식당에서 막걸리 한 잔하며 먹을 수 있는 안주였지만 지금은 양식을 통해서 사철 먹을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강화도 갯벌에서 자란 장어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양식장에서 부화한 치어를 갯벌에서 일정기간 놓아기른 뱀장어를 말하는데 흠냄새와 비린내가 없고 육질이 쫄깃하며 지방이 적어 소화가 잘된다. 대신 양식과정에서 치사율이 커 일반 장어에 비해 비싼 편이다.

하루 네 번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더리미 장어

장어를 뜻하는 한자 '만(鰻-뱀장어 만)' 자에는 매일(日) 네 번(四) 먹어도 또(又) 먹고 싶은 물고기(魚)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더리미 장어를 두고 생겨난 말인지 먹어도 먹어도 자꾸 생각나고 그리워진다. 우연히라도 장어마을을 지날때면 사철 장어 굽는 냄새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1979년에 문을 연 선창집(932-7628)은 27년째 더리미장어 원조의 맛을 지키고 있다. 더리미 장어마을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강화특산물을 종합선물세트로 한상 받을 수 있다. 어느 집을 들어가나 비슷한 메뉴가 나오는데 애플타이저로 기름에 튀긴 장어뼈가 나오고 밑반찬으로는 강화순무로 맛깔나게 담근 김치, 꿀을 문힌 강화인삼, 기름진 강화 쌀로 쑨 장어죽 등이 나온다. 잘 구어진 더리미 장어에 강화 칠선주라도 한잔 곁들이게 되면 들어보지도 못한 강화사투리가 툭툭 나올 것 같다.

강화에서 태어난 선창집의 안주인 권영례(63) 씨는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강화의 맛을 전수받았고 그 손맛으로 밑반찬을 직접 준비한다. 선창집에서는 질 좋은 장어를 공수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초벌구이를 해서 낸다. 핏기어린 장어꼬리가 산채로 나오는데 바로 잡은 장어임을 증명해준다. 특히 토막을 내서 초벌구이를 하기 때문에 통

째로 3~4번 구워 나오는 것보다 기름이 말끔하게 빠지고 살이 줄지 않아 통통하고 쫄깃한 장어의 속살을 그대로 음미할 수 있다. 더리미에는 장어집 12곳



더리미 장어 만들기

1. 간장에 장어머리와 뼈, 흑설탕, 물엿, 맛술, 생강, 계피, 마늘, 양파즙, 파즙 등을 넣어 6시간 이상 다린다.
2. 다린 간장을 식혀 고추장과 4:6의 비율로 넣고 보름정도 저온에서 숙성시킨다.
3. 준비된 장어의 껍질부분을 밑으로 놓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굽고 양념이 장어에 잘 스며들도록 3번 정도 양념을 발라 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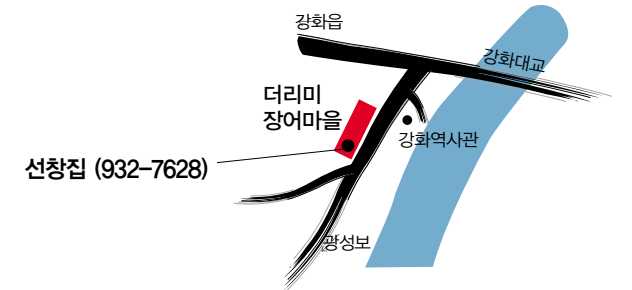
장어 고르는 법

1. 몸에 점액이 많고 미끄러울수록 좋다.
2. 등의 빛깔이 진하고 광택이 있는 것이 신선하고 맛이 있다.
3. 산란기 전인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맛이 가장 좋다.
4. 수입 양식장어는 국내산에 비해 눈과 머리가 크고 뭉툭하며 구울 때 살의 수축이 많다.

이 웅기종기 모여있는데 사이 좋게 서로서로를 홍보해 줄만큼 인정이 넘친다.

장어꼬리가 정말 좋아요?

요리를 배우기 위해 참여한 이지순(36, 연수구) 씨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과제빵 교육을 받고 요리사 자격증을 2개나 취득할 정도로 요리에 관심이 많은 주부다. 소녀같은 외모와는 달리 12년차 주부인 이 씨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묻는다. “장어꼬리가 정력에 좋다고 하잖아요. 장어는 생식기가 꼬리에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그건 낭설이에요. 꼬리가 다른 부위에 비해 힘이 좋지요. 물에서 헤엄치는 원동력이 꼬리에서 나오고 갯벌로 들어갈 때도 꼬리 힘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단백질 스테미너 음식인 장어는 필수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몸의 생기를 왕성하게 하지요. 여성의 피부미용과 노화방지도 좋아요.”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가족과 함께 강화에서 장어를 먹는다는 이 씨가 유난히 피부가 좋고 젊어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



선창집 (932-7628)

여러분도 일일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부는 <굿모닝인천> 편집실 (440-2073)로 연락 주세요.



희망의 돛을 올려라 공존의 날개를 펴자

한국스카우트연맹 노들담지역단은 지난 7월25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시가현(滋賀縣)에 있는 일본 최대의 호수 비와호(琵琶湖)에서 일본 청소년들과 함께 해양 스포츠 전문센터 BSC 주관 아래 요트, 윈드서핑, 세일링 등 해양 훈련과 유적지 답사 등 문화체험을 했다. 'Better understanding, Brighter World - Spread your Wings'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들담 측 16명의 대원(파견대장 진길홍)과 일본 측 30여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비와호 수변에 국제캠프를 마련했다.

지난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서로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면서 양측의 교류는 시작되었다. 상이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간 우정을 쌓아가며 캠프를 통해 양국의 청소년들이 세계화시대를 이끌어 가자는 공동미래 프로젝트의 일환인 것이다.

글·사진 | 유동현 (본지 편집장)



1. 오쓰시장의 캠프장 방문 2. 카약의 기본 동작을 배우는 한·일 청소년들 3. 백제사 탐방에 앞서 주지로부터 사찰의 유래 등 설명을 듣다. 4. 비와호 박물관을 관람하는 대원들 5. 세계문화유산 '히에이잔 엔자쿠지'에서의 타종

다다미방에 눕다

간사이공항을 통해 일본 땅을 밟은 대원들은 교토를 거쳐 캠프장 BSC센터에 입소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일본청소년들은 대원들을 기다렸다가 환영가를 부르며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이미 두 차례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인지 구면인 몇몇 대원들끼리는 서로 얼굴 안으며 반갑게 해후했다. 입영식을 간단하게 마치고 조별로 배정받은 숙소로 들어가 짐을 풀었다. 숙소는 다다미방이었다. 독특한 다다미의 짙은 냄새가 방에서 물어났다. 일본 문화체험은 이미 그렇게 시작되었다.

물안개 피어오르는 비와호 호수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대원들은 먼저 2인용 카약의 기본적인 자세와 요령을 습득하고 한·일 청소년이 한조가 되어 힘차게 노를 저으며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약과 호수 그리고 몸이 하나가 되었다.

캠프가 차려진 비와호는 마치 바다와 같았다. 대원들은 일정 내내 바다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호수에서 잠시나마 호연지기를 키웠다. 비와호 주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2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사람들은 그 때부터 비와호의 물을 마시고 그곳에 사는 고기를 잡으며 수변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관서(關西)지방 주민들은 이제는 그곳에서 레저와 관광을 즐기며 하늘이 주신 선물 비와호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백제를 만나다

캠프 3일차 오전, BSC센터가 소재한 오쓰(大津)시의 메타카 마코토(目片 信)시장이 캠프장을 방문했다. 메타카 시장

은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오쓰시에서 우정의 캠프를 연 것을 환영하며 격려했다. 우리대원들은 바이올린과 플루트를 연주하며 일본가사로 된 노래로 화답했다.

해양스포츠 훈련은 계속되었다. 바람의 힘으로 물살을 헤쳐 나가는 윈드서핑은 습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몇 번이고 물 속으로 빠졌지만 대원들은 7월의 태양 아래서 연신 구슬땀을 흘리며 물위에서 걸음마를 배웠다.

낮 일정을 다 끝내고 노무현대통령자료관에서 양국 청소년이 토론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양국 청소년들의 연예관심사부터 진로문제, 자위대 입대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름밤은 깊어갔다.

다음날 아침, 대원들은 문화탐방에 나섰다. 비와호 대교를 건너 백제사(百濟寺)로 향했다. 사찰명에서 풍기듯 백제사는 606년 백제인들이 건너와서 창건한 절이다. 1400년 전 백제인과 일본인의 교류,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06년의 한·일



청소년끼리의 교류... 경내를 둘러보며 역사는 끊임없이 그렇게 공전되는가 보더라는 생각에 잠시 빠졌다.

돌아오는 길에 시가현에서 운영하는 비와호박물관을 관람했다. 아쿠아리움의 형식을 띤 그 박물관의 규모에 먼저 놀랐고 비와호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보존하며 체계적으로 전시한 그들의 치밀함에 또 한 번 놀랐다.

기모노를 입다

비와호는 산으로 둘러 싸여 있다. 호수 위의 물안개와 산의 구름이 만나 늘 한쪽의 동양화를 그려 낸다. 하얀 요트를 탄 우리 대원들이 그 한 쪽의 그림 한 부분을 장식했다. 2인용 요트에 나눠 타고 레이스를 벌였다. 바람과 물결로 인해 맘먹은 대로 나가지 않는 항해를 하며 어린 그들은 과연 자



신의 앞에 놓인 인생의 항해를 생각해 보았을까.

비와호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해발 1303m 바이레산을 케이블카로 올랐다. 정상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짙은 안개로 시야는 제로였다. 끝내 비와호와 바이레산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지



6. 기모노 착용 체험시간 7. 해 뜨는 비와호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노무현대통령자료관에 다시 모여 기모노(유카타)를 입어 보는 이색체험이 있었다. 이노우에씨의 부인은 번갈아가며 일본 전통 옷을 대원들에게 입혀주었다. 기모노를 입은 낯설지 않은 모습에 대원 자신도 놀라고 일본인들도 놀랐다. 한국과 일본... 의외로 닮은 점이 많았다.

마지막날까지 해양체험을 한 후 어둠이 찾아오자 숙소에서 망원경을 통해 별자리를 관찰했다. 저 달과 저 별도 우리 집을 비추고 있겠지...이미 친숙해진 다다미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대원들은 꿈속에서 이미 한국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다.☀

BSC워터스포츠센터의 노무현대통령 기념관

BSC워터스포츠센터 내 이층 건물 입구에는 '한국대통령 노무현 자료관'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어 눈길을 끈다. BSC 이노우에 요시오(井上 良夫) 총재는 호반의 도시 오쓰시에서 태어나 近畿大에 다니며 체육회에서 요트를 배우고 1973년 비와호 세일링센터를 개교했다. 이후 영국 UK 세일링아카데미로 유학해 영국왕립요트협회 공인인스트럭터 자격을 취득했다.

1982년 제1회 한일친선 요트대회를 개최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해 현재까지 매년 부산시요트협회와 친선대회를 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당시 지역요트협회장을 맡고 있었던 노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뤄졌으며 노대통령은 83년에 요트 선수 10여명과 함께 BSC를 방문해 1주일간 함께 교육을 받기도 했다.

2003년 6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은 이노우에씨와 조우했고 이어 지난해 4월 이노우에씨가 일본 청소년들을 인솔하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일행을 접견하는 등 현해탄을 넘나드는 우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노우에씨는 2003년 6월 스포츠센터 내에 '한국대통령 노무현 자료관'을 개관하고 사진, 수료증서 등 노대통령에 관련한 자료들을 소중하게 보관하며 전시하고 있다.



BSC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준비운동을 하고 구멍조끼를 입은 후에 카약을 타러갔다. 카약은 배와 비슷한 것인데 노를 저으면서 하는 운동이다. 카약은 '비와호'라는 호수에서 탔는데 정말 넓었다. 처음에는 바다인줄 알았는데 사방이 막혀 있어서 호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곳이 일본에서 가장 넓은 호수라고 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카약을 탔다. 일본 친구들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돌췌 짝을 지었고 나는 '타카시'라는 남자아이와 함께 탔는데 아직 어렸는데도 힘이 세서 놀랐다. 점심을 먹고 윈드서핑을 하러 갔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는 쉽게만 느껴졌는데 직접해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나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이 보드 위에 제대로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했다. 간신히 일어서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넘어지고를 반복했다.

셋째 날, 어제 저녁에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인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아침을 먹고 오쓰시 시장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단복으로 갈아입었다. 우리는 툼툼이 준비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불렀다.

점심식사 후에 다시 구멍조끼를 입었다. 그리고 범선을 타면서 신나게 달렸다. 몸을 조금 숙여 물 속으로 손을 넣었는데 시원했다. 범선이 물을 가르며 달리는 것처럼 내 손도 물을 가르면서 갔는데 기분이 좋았다.

금요일 아침, 스카우트 티셔츠를 입고 백제의 혼이 서린 하큐사이지 절에 갔다. 삼국시대 때 백제의 승려들이 전쟁을 대비해 지은 절이라고 하였다. 절을 구경한 뒤에는 점심을 먹었다. 점심식사 후에는 비와호 박물관을 견학했다. 물고기들이 정말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도 많았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물고기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컸다. 아직 새끼인데도 1m는 족히 되어 보였다.

비와호와 친구되다

비와호 박물관을 견학한 다음에는 히에이잔산 엔자쿠지를 구경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수 주변을 청소했다. 식사를 하고 마린 레이싱을 했다. 3개로 조를 나눠서 카약도 하고 윈드서핑 보드에 어느 팀이 많이 올라가나도 했다. 우리 팀이 1등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

마린 레이싱을 한 뒤에는 점심을 먹고 바이레산을 올라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정말 멋있었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비가 와서 시야가 흐릿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기념관에 가서 유카타를 입어보았다. 유카타는 정말 이뻐다.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일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저녁 때는 일본 스바루 선생님의 방에 놀러갔다. 스바루 선생님이 실내에서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별자리도 보여주시고 일본 영화 포스터와 선생님의 졸업앨범도 보여주셨다. 선생님의 졸업앨범에는 웃긴 사진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 학생들은 졸업앨범에 들어가는 사진도 꾸밈없이 찍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쥐를 잡자' 게임도 했다.

마지막 날 아침, 5시30분에 일어났다. 나라에 있는 동대사 절을 잠깐 보고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공항에서 이노우에 씨와 통역사 아저씨와 아쉬운 이별을 했다. 6박 7일의 짧은 기간 동안 내 평생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추억을 만들어준 일본 친구들, 이노우에 씨와 BSC선생님들, 통역사 아저씨, 스카우트 대장님 그리고 대원들 모두에게 감사한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글 · 강명미 (청량중 2학년 · 청소년웹진 M●● 명예기자)



능허대와 한나루의 기생바위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paran.com)



연수구 옥련동의 능허대, 이곳은 백제때 한나루라 불리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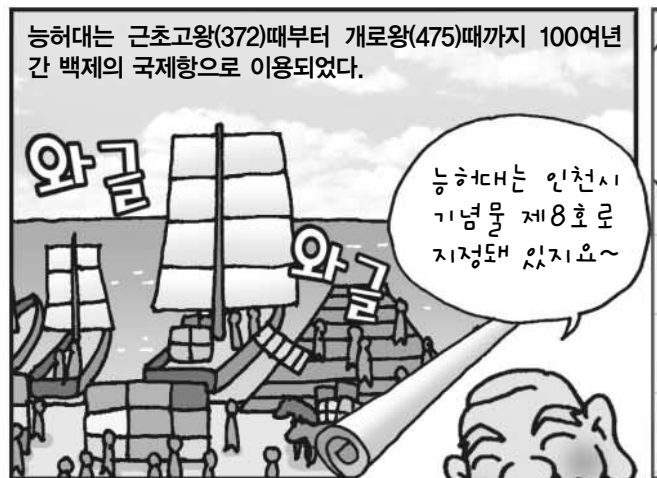
당시 백제는 지리적으로 고구려에 의해 육로가 막혀있었기 때문에 해상으로 중국과 교류하였다.



인천의 능허대가 백제 사신의 출항지가 된 것은 백제의 한산에서 서해로 빠지는 한강 하류역의 길목에 위치하는 지리적인 조건과



또, 인천이 해상활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능허대는 근초고왕(372)때부터 개로왕(475)때까지 100여년간 백제의 국제항으로 이용되었다.



이 능허대엔 애뜻한 전설들이 전해져 오는데 그 중 한가지를 얘기해 드리죠~

전설따라 삼천리



백제의 사신들은 배를 타기 위해 만수동 별리현과 문학산 심호현을 넘어 능허대로 왔다.



어느날 사신일행이 능허대 한나루에 도착해 배를 타려고 준비할 무렵이었다.



나랏일이 바쁜데... 사공, 이 날씨에 갈 수 있겠는가?



하느수 없이 사신일행은 객주에서 머물게 되었고 사신은 그곳의 한 기생과 정분을 나누게 되었다.



이레째날, 드디어 날이 개고 사신일행은 출발을 하게 되었다.



흥! 나리, 저도 데려가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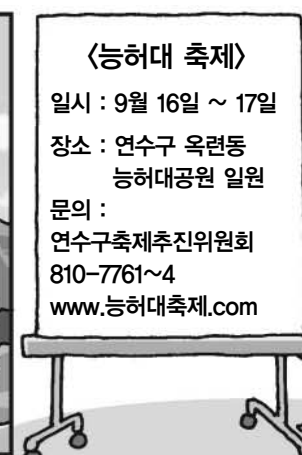
짧은 기간 정분을 쌓았던 기생을 뒤로하고 배는 떠났다.



기생은 바위 위에 올라 배를 향해 절을 올리고



몸을 던져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때부터 한나루 언덕의 이 바위를 기생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이런 전설과 역사를 간직한 능허대에서 매년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열린답니다

《능허대 축제》

일시 : 9월 16일 ~ 17일

장소 :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공원 일원

문의 :

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

810-7761~4

www.능허대축제.com



우리 옷방의 고구려 여인 ‘에스더 리’ 이현경 씨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고구려 여인! 기다리는 동안 입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 보니까 벽에 걸린 색색의 특이한 한복들이 너울너울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이내 소서노(召西奴)가 다가와 서고, 동명성왕인가, 광개토왕인가, 연개소문인가, 다시 수만 군마(軍馬)의 발굽 소리와 함께 뽐안 먼지가 일고, 그 속에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 우렁찬 독전의 함성 소리 같은 것들이 뒤섞인다.

이런 환영(幻影)이 눈에 보인 것은 공교롭게도 요즘 어느 TV에서 방영한다는 한 사극 때문이 아니다. 여자가 직접 염색을 하고, 거기에 우리 전통의 꽃문양들을 손으로 일일이 그려 넣은 황홀하고 신비스런 색깔의 비단 한복들이 풍기는 느낌이 이미 환상이었고, 마주 앉은 이현경(李賢敬) 씨의 예사롭지 않은 눈빛이 벌써 고구려 여인의 혼의 발산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는 11월 23일 인천의 송국문화재단이 패션쇼를 주최합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자선 패션쇼인데 주 컨셉이 바로 고구려의 기상이에요. 호방하고, 역동적이고, 활달한 고구려인들의 성정을 패션 한복을 통해 발산해보려고 합니다. 관객들도 크게 호응하리라 생각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그래서 ‘명품 한복, 에스더 리’라는 매장을 열어 놓고도 마음은, 가슴은, 저 장백(長白)의 산언덕을 넘어, 만주 별판과 발해를 넘나들고 있는 여장부. 유대인을 죽음에서 구했다는 에스더(Esther) 왕비와 닮은 것일까. 할머니도 아버지도 다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 집안인 데다가, 함경북도, 그 춥고 매서운 관북지방의 기골(氣

骨)을 받고 태어났으니 영판 고구려 여인이 아닐 수 없다.

미대 서양학과를 중도에 서 그만두고 장로교신학대에서 심리학을, 그리고 다시 이화여대에서 미술학 석사를, 그리고 명지대학에서 의상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뿐인가. 시내 모 대학의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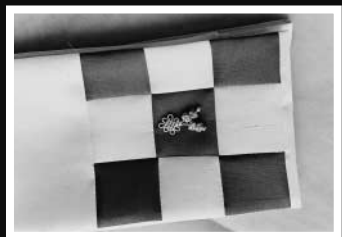
수인 남편 때문에 경영학도 공부했으니, 이 분야 저 분야 참 다채로운 학력(學歷)을 섭렵한 셈이다. 그러니까 복식(服飾)을 만지는 것이 업(業)이 될 수 있고, 염색도 디자인도 결코 남의 손을 빌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마케팅도 역시 그렇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게는 누구보다도 고구려 피가 진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럼 느낌이 들어요. 천 몇 백 년, 그 시대로 올라가 숨을 쉬면 가슴 속이 그렇게 빠근해 올 수 없음을 느끼거든요. 그걸 내보이는 거지요. 특히 외국인들은 이 동양의 신비에 흠뻑 빠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보세요. 거침없는 기백과 솔직함과 그러면서도 화사함을 놓치지 않은 고구려의 미, 그것을 살려낸 한복의 선과 색채에 매혹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명절복, 예복으로 입는다면 그네들은 파티복으로 이 옷들을 매우 선호하지요.”

보름달처럼 둥근 얼굴, 그리고 멀리서부터 불길기, 겨울밤처



유대인을 죽음에서 구했다는
에스터(Esther) 왕비와 닮은 것일까.
할머니도 아버지도
다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 집안인 데다가,
함경북도, 그 춥고 매서운
관북지방의 기골(氣骨)을 받고 태어났으니
영판 고구려 여인이 아닐 수 없다.



럼, 그 깊은 관복의 숲에서부터 이글이글, 분명 일어 올 것만 같은 진한 눈빛, 그리고 단호한 과단성, 끓는 열정. 거기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 혼자만의, 상식과 평탄을 넘어선 독특한 심미(審美), 상상력. 그래서 엉뚱하게도 문득 신이 지핀다면 아마... 을지문덕을 받든다면... 이런 따위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깐 이번에는 이 여자, 이현정 씨의 패션 한복들 천의 올라다 모조리 그런 기(氣)가 배어 있는 듯 싶은 것이다.

금관 벽화, 구름 당초, 능선, 색동, 혼적, 일월오악도 같은 이름을 가진 '에스터 리'의 명품 한복들. 그것들이 감색(紺色) 안개를 파우고, 뚝뚝 북소리를 내고... 마침내 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지친 머리를 내려놓고, 두 눈은 깜깜하게 감은 채, 서늘한 고구려의 고분(古墳) 속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이다.

한 발짝, 한 발짝 요녕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으로, 길림성(吉林省) 집안현(輯安縣)으로, 그리고 통구(通溝)의 무용총(舞踊塚)으로, 또 평양(平壤)의 쌍영총(雙盈塚)의 어두컴컴한 지하로... 여자는 촛대를 들고 앉아서 컴컴한 계단을 내려간다. 우아하게, 신비하게, 치맛자락이 끌릴 듯, 약한 바람에도 촛불은 꺼질 것만 같은데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나가야겠어. 밖으로 나가야겠어. 나가서 물어 봐야지. 이현정 씨, 사진도를 옷에 그려 넣으면 어떨까. 주작이 날고 백호가 포효하는 그런 옷을 만들어 입으면 어떨까. 저 눈부신 햇빛 속으로 푸드득 푸드득 삼족오(三足鳥)도 날아오르게 하면 어떨까. 아아, 그만 밖으로 나가야겠어.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 거예요. 그건 피라미가 아닌데..."

멀쩡한 대낮, 짐통더위 속에서 몽롱하게 '별다른 소리'만을 내뿜고 있는 이쪽이 여자는 딱한 것이다. 창호지에 잔뜩 그려진 것은 피라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냥 무늬일 뿐이다. 녹차잔 밑에 깔린 누비천의 담백한 수(繡), 그 예쁜 문양도 이쪽은 그냥 몸살 기운일 뿐이다. 여자가 고안했다는, 특히 출원중에 있다는 패션 장롱의 겉면 실크 위에 프린트된 민화(民畵) 역시도 어질어질한 것이다.

"인천 토박이예요."

그 말에 비로소 같은 토박이가, '나갔던 사람의 정신이 다시 돌아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정말 만났다고 다소 과장스럽게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는 것이다.

"인천 사람의 정체성이라면 무색무취하지만 따뜻한 성정이라고 생각해요. 인천은 정말 따뜻한 곳이에요."



약간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의 말 속에 담긴 뜻,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 사는 인천이란 도시의 특성을, 그래서 생겨난 인천 사람들의 성격을, 에둘러 이야기한 나름대로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인천을 떠나 산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덧붙이는 마음도...

매년 중소기업청이 선정한다는 신지식인이 된 것도, 2003년인가,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Vogue)' 지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Asian Look'으로 뽑혀 게재되었던 것도, 우리의 전통을 시대의 감각에 맞게 살려낸 여자의 뛰어난 감수성과 창의력, 그리고 경영 수완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전통 문화는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의 초점을 저 고구려로부터 더욱 확장해서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한국사의 흐름에 맞춘다는 것이다. 해양국 백제, 외교와 삼국통일의 신라적 특색, 고려의 호연지기, 조선의 민족 정신을 나름대로 의복에 표현한다는 당찬 고구려 여인.

"살아오면서 시련도 좀 있었어요. 이제 이 기회는 하느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내후년쯤에는 외국에 나가서 더 공부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재충전, 재충전 해야지요."

주안역 근처의 '에스터 리' 본점. 염색 공정을 구경시키고는 무슨 시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맺으며 전승을 위해 여자가 문 앞에 선다. 돌아서는 이쪽을 향해 여자가 미소를 짓는다. 사람 하나를 또 만났구나. 땀 흘리며 돌아서다가, 그런데 문득 그 미소 속에서 이제까지의 고구려 여인 것이 아닌, 난데없는 한 백제 여자의 웃음을 본 것이다.



편지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



3년전 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펜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중2 때였는데 잡지를 통해 펜팔을 알게되었고, 편지 쓰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저는 ‘이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펜팔을 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지 얼마 후 청주에 사는 한살 어린 지연이라

는 아이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애의 ‘펜팔 하지 않겠냐’는 메일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재미삼아 시작한 펜팔로 편지가 한 통 두 통 오가면서 저희 둘은 점점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 의자매까지 맺어서 진아, 은아라는 애칭도 지으며 아직까지도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쁜 일 슬픈 일 둘이서 함께 나눠 가며 정다운 자매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가득 담아 편지를 쓰고 우표를 한 장 한 장 붙일 때마다 저의 벅찬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외동딸인 저에게 하나뿐인 동생이 되어준 지연이. 저보다 어리지만 제게 큰 힘이 되어주는 착한 동생입니다. 은아(지연아), 우리 앞으로 평생 인연 끊지 말고 지속해 나가자~.

김다혜 (부평구 갈산2동)

손수건 편지

“누나, 생각 나? 누나가 아빠한테 보낸 손수건 편지 말이야” 더위에 지친 하루를 동생네 식구들과 수박 한 덩이 나누며 달래고 있을 때였다. 유난히 자잘한 기억들을 가끔 들추어내서는 잊었던



날들을 문득 떠올리게 하는 남동생이 톱 내뻗은 한마디가 옛 생각에 젖게 했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우리 아빠는 가족을 위해 멀고 먼 열사의 나라로 취업을 떠나셨다. 우리 아빠는 평소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항상 아낌없이 표현하는 분이셨다.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우리들과 뽀뽀할 볼을 내어 주셨고, 아무리 빠듯한 살림이었어도 우리들에게 ‘소년중앙’ 같은 월간지를 구독시켜 주던 분이셨다. 당신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몸살을 앓으시던 분이 1년,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우리를 볼 수 없었으니 그 외로움은 깊고 깊은 산 그림자처럼 무겁고 어두운 그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우체부 아저씨의 발걸이 끊어질 날이 없었다. 보통은 우체부 아저씨가 가져다주는 한 통의 편지 봉투 안에 가족들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 한통이거나, 한통의 편지 안에 가족 개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 아빠는 특이하게도 우리들 개인에게 각각의 편지를 보내셨다.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부인 000’ ‘보고 싶은 딸 000’ ‘근사한 아들 000’라는 형용사를 아끼지 않으셨기에 우리들은 각자에게 배달 된 편지 봉투만으로도 늘 아빠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우리 남매는 아빠의 정성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아빠의 부재 속에서도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우리는 각자 아빠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빠가 외국 생활을 하시는 기간 내내 더욱 더 생각과 자세를 반듯하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한 번은 내가 아빠의 편지 속에서 아빠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지를 읽게 되었다. 그래서 아빠를 위로하고 아빠에게 힘을 불어 넣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얀 손수건에 빨간 매직으로 ‘아빠, 우리 생각 나실 때마다 우리들의 사랑을 생각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다. 아마도 더운 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이 손수건이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실 때마다 우리 가족을 만나시라는 뜻에서 그리 했던 것 같다. 우리 남매가 아빠의 고된 땀방울위에 대한 졸업장을 펼쳐게 되자 아빠는 몇 차례 미루고 미루던 귀국을 하셨다.

아빠의 영구 귀국 날, 우리는 아빠의 낡은 속옷들 사이에서 색이 바랜대로 바래서 흔적이 희미하기만한 나의 손수건 편지를 발견했다. 아빠는 우리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우셨다고 했다. 그 날, 우리는 가족을 위해 당신의 온전한 삶을 희생하신 우리 아빠 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남동생은 왜 뜬금없이 나의 손수건편지 이야기를 꺼냈을까?? 아마도 요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상황이어서인가 보다. 세 아이의 근사한 아빠가 되고 싶은 남동생은 아마도 문득 우리 아빠처럼 위로받고 싶은 지도 모르겠다. 아니, 남동생은 우리 아빠처럼 가족을 위해 어떤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결심을 다지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한미라 (남구 주안4동)

피카소 그림, 한석봉 글씨

삼십대 중반을 넘어서 나에게 편지는 집사람과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었다. 거리가 많이 떨어진 이유에서도 그렇고 지금처럼 휴대전화



가 많고 공중전화 한번 하려면 동네에서 긴 줄을 서야만 하는 이유에서였다. 지금처럼 문자편지나 이메일처럼 바로 보내고 바로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손에 받아든 봉투에서 벌써 보낸 이의 이름만으로도 전자우편으로는 느낄 수 없는 감흥을 느끼곤 했다. 이제 결혼 10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편지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편지를 써왔다. 그림은 피카소의 현대미술을 닮았고 글씨도 불꺼진 방의 한석봉의 필체였지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 줄의 편지는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에 충분하였다. 생각해 보니 아직 나는 그때의 아들편지에 대해 답장을 못했다.

[현기에게....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아빠도 사랑한다. ...아빠가.]

채희윤 (남동구 만수5동)

편지 몇 통으로 행복했던 어린시절..



위로 형제가 없던 나는 방학이나 명절 때만 볼 수 있는 사촌언니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어렸을 때라 한글에 서툰 나와는 달리 3살 위인 언니는 예쁜 편지지에다 글씨도 도박도박 써서 먼 대구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른다. 편지를 보내고선 언제 답장이 올지 몰라 몇 번이고 편지함을 기웃거렸던 기억이 난다.

편지라도 오면 동생들과 서로 읽으려고 싸우다가 우표는 따로 떼어서 우표 모으는 앨범에 넣고 편지는 예쁘게 만든 편지상자에 넣어두었다. 언니 향이 나는 것 같은 그 편지를 읽어보고 또 읽고 가끔씩 답장이 안 오면 크게 실망하기도 하고 좀더 일찍 도착할까 싶어서 버스를 타고 근처 우체국에 가서까지 편지를 부쳤던 생각이 난다. 방학 때는 그렇게 언니와 편지 쓰는 재미로 지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흘러 내 편지상자도 커질 때쯤 우리는 사춘기예다가 입시에 어느새 부턴가 서먹해져서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게 되었다. 몇 년 전부터 이메일이 발달되어서 보내는 즉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더 이상 예쁜 우표가 붙어있는 정성들인 손 글씨 편지는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아직도 책상서랍에 간직되어있는 예쁜 편지함. 오랜만에 옛 추억에 잠기게 해주는 내 어린시절의 보물이다.

구혜경 (남동구 남촌동)

남편이 모아둔 연애편지를 보며

얼마 전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남편의 책장을 옮길 기회가 있었는데 책장 맨



윗부분에 누렇게 색이 바랜 두툽한 봉투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필요치 않으면 버릴 요량으로 열어보게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다름 아닌 남편과 연애편지. 내가 보냈던 편지들을 모아둔 일종의 비밀상자였던 것이다. 남편과 만나던

15년 전만해도 이메일이나 문자도 없었고 손으로 꼭꼭 눌러쓴 편지나 시외전화가 전부였다. 예전의 그 애틋한 감정은 다 어디가고 이젠 생활에 찌들고 세파에 묻혀 그저 무덤덤한 사이가 되었는지 한참이나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남편 뒤편에는 나 모르게 잘 보관하느라 평소에 잘 보지 않는 곳에 숨겨 두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오랜만에 풋풋하고 사랑으로 온 세상이 빛이 났던 그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싶어 살며시 웃음이 났다.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백발의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 편지를 안주삼아 ‘그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옛 이야기 나눌 기회가 꼭 있으리라. 다시 처음 자리에 그대로 옮겨 놓으며 하루가 즐거웠다.

조혜미 (남동구 삼산동)

외국에서 날아온 편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날 사회시간에 선생님이 그러셨지요, 이젠 글로벌시대라고. 그때 선생님은 자신의 펜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적극 권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편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3년간 생전 편지라고는 친구들한테 받은 생일축하 편지 밖에 없던 제가 막상 편지를 쓰려고 하니 잘 되지 않더군요. 인터넷을 보니 ‘외국 애들과 하면 외국어 실력 엄청 는데요~’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현혹(?) 되었고 당장 외국 펜팔사이트에 저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그리 빨리 오지를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에 쉬엄쉬엄 오는 편지를 보니 반가움 보다는 왜 더 빨리 오지를 않았냐는 원망이 더 많았지요.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영어로 휘갈겨 쓴 듯한 편지가 3장.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니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글씨. 편지봉투를 보니 그 편지는 가나에서 왔고, 그 아이는 꽤 잘사는 집 아이였더군요. 저는 답장을 보냈지만 아직 그 아이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제가 쓴 영어를 못알아 봐서 못보내는 것일까요? .

이민구 (계양구 계산동)

다음달 글의 테마는 ‘웃’

다음달 테마는 ‘웃’입니다. 웃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http://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9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추석연휴 인천가족공원 차량 통제합니다

올해 추석연휴기간(10월 5일~10월 7일) 인천가족공원(옛 부평묘지공원)을 이용하는 성묘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인천가족공원 입구에서부터 차량진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성묘객께서는 대중교통과 지하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묘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 성묘객의 수송편의를 위해 인천가족공원 내 3개 코스별로 45인승 셔틀버스 등 총 6대를 운행합니다.

•문의 : 시 가정청소년과(440-3952), 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장묘문화센터(507-1207~8)

제24회 인천광역시 문화상 시상합니다

향토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상을 시상합니다.

•수상부문 및 인원 : 문학, 미술, 공연예술, 체육 언론 등 5개 부문별 각 1명

- 수상 후보자 추천
 - 접수기간 : 9월 8일(금)~9월 15일(금)
 - 접수처 : 시 문화예술과
 - 접수방법 : 방문제출, 우편접수
 - 추천권자 : 해당 부문별 관련단체 및 기관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 · 학장, 교육감 또는 군수 · 구청장,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

- 수상후보자 요건
 -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계속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타지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천을 널리 알린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과거 시 · 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 경력이 없는 사람

- 추천서류
 - 소정 양식에 의한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 1통, 칼라 명함판 사진 2매
 -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1부(작품, 사진, 인쇄물, 스캔 등)

•시상 일시 및 장소 : 10월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 시(기념식 행사장소)

•시상내역 : 각 부문별 인천광역시장 상패

문의 _ 시 문화예술과(440-4017)

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지원합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중 · 고등학생)를 대상으로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로서 중 · 고등학교, 특수학교, 사회교육시설 등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생
 - 성적우수장학생(매년 3월, 9월 신청) : 직전학기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7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금액 이하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대 상	지원금액	지 원 기 간
중학생	20만원/분기	가. 성적우수장학생(매년 3월, 9월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 학기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2회 지급 나. 특기장학생(매년 3월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 학년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지급 (특기장학생은 2차 지원신청 불가)
고등학생	30만원/분기	

• 신청기간 : 9월 1일(금)부터~9월 30일(토)까지

※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9월 1일(금)~10일(일)에 서류를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 _ 교통안전공단인천지사 (833-6700 정명숙, 윤진형 www.kotsa.or.kr)

16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사)인천광역시호스피스센터에서는 현재까지 1,3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270여명의 봉사자가 인천시의 종합병원 및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4일부터 10월23일까지 8주간 열리는 이번 교육은 선착순 80

명에 한하며, 18세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가능)

• 일시 : 9월 4일(월)~10월 23일(월) 오후 1시~오후 4시30분
매주 월요일 8주간

• 장소 : 인천기독교회관 7층 강당(구월동소재)

• 수강료 : 무료(접수비 1만원)

• 주관 : (사)인천광역시호스피스센터

문의 _ (사)인천광역시호스피스센터 (434-7007, 442-7005)

인천의료원 무료검진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소외계층 및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9월 1일(금)~9월 7일(목) (5일간, 단 9월 2일(토) 제외)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 (정형외과 1)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 골다공증검사 • 검진인원 : 150 명

문의 및 상담 _ 인천광역시 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478, 580~6651~5)

2006 여성취업페스티벌 열립니다

여성구직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2006년 인천여성 취업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 행사일시 : - 오프라인 박람회 : 9월 15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 온라인 박람회 : 9월 5일(화)~9월 22일(금)
- 사전접수 : 8월 22일(화)~9월 14일(금)

•행사사이트 : http://inwoman.jobkorea.co.kr

•행사장소 : 인천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인천지하철 동춘역 1번 출구 이마트 옆)

•참가대상 : 인천지역 기업체중 채용예정이 있는 기업 및 여성구직자, 이 · 전직 희망 여성

- 행사안내 :
 - 채용관 : 여성전문인력 채용관, 우수기업 채용관, 새내기 채용관, 재취업채용관
 - 여성유망 신직업 100선 : 여성직업 100선 정보관, 여성 신직업 체험관, 여성 신직업 상담관
 - 1:1 컨설팅관 : 이력서 · 자기소개서 컨설팅, 경력컨설팅, 면접이미지컨설팅, 재취업교육컨설팅, 여성창업컨설팅
 - 홍보관 : 인천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인천여성문화회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시 보육정보 홍보관
 - 부대행사관 : 참여기업 채용설명회, 취업성공 메이크업 쇼, 온라인 인성적성 검사관, 스트레스 해소방&희망의 솜사탕, 유망자격증정보관, 취업도서관&휴게관, 이력서사진촬영관, 유아놀이방

•참여기업 특전 : 채용지원, 기업홍보 특전

•참여구직자 특전 : 취업지원, 부가서비스 제공

문의 _ 2006 인천여성취업페스티벌사무국(02-3466-5308~9) 시 여성정책과(440-2714)

인향야간학교 신입생 모집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에서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육과정 : 초 · 중 · 고등과정 각각 1년 수료

•모집인원 : 남 · 녀○○명(연령제한 없음)

•모집마감 : 9월 25일(선착순마감)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저녁 6시~9시)

•모집특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무료

•모집처 : 중구 송월동3가 3-93 (제물포고 후문 길 건너편 위치)

문의 _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772-4061, www.inhyang.net 오후 5시 이후 문의바랍니다)

제2회 인천시 재활용품 공모전 열립니다

〈작품공모〉

•공모기간 : 8월 16일(수)~9월 15일(금)

•공모분야 : 초등부, 중 · 고등부, 일반부(대학생포함)

•응모자격 : 초등학교생 이상 누구나

•작품주제 : 자유(재활용품을 이용한 1인 1점)

•작품규격 : 가로 · 세로 각1m x 높이 1.5m이내, 중량 10㎏이 하

•접 수 처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실(구월동 씨티은행 본점 8층)

※ 타 공모전에 입상하였거나 폭발성 등 안전의 위험이 있는 작품 제외

〈작품심사 및 입상작 선정〉

•입상작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부문별	대상(1명)	금상(각2명)	은상(각3명)	동상(각10명)	장려상(각20명)
초 등 부	100만원	30만원	10만원	5만원	3만원 (도서상품권)
중 · 고등부		40만원	20만원	10만원	3만원 (도서상품권)
일 반 부		60만원	40만원	20만원	3만원 (도서상품권)

※미입상 작품 중 200명 한정(접수순) 도서상품권(5천원) 제공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예정)〉

•입상작 발표 : 9월 28일(목)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홈페이지 (www.iagenda21.or.kr) 게재

•시상식 : 10월 16일(월) 오후 2시 인천시청 대회의실

•당선작품 전시 : 10월 16일(월)~10월 20일(금)인천시청 중앙홀)

문의 _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440-1544) 시폐기물자원과(440-3573)

부모교육 가을특강열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부모들이 지혜와 용기를 얻어 올바른 부모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우기 위해 부모교육 가을특강이 열립니다.

•주제 :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되기

- 일시 : 1차 - 9월 21일(목) 오전 10시~12시
‘내가 웃어야 가정이 산다’ 오재은 (천안대 상담학과 교수)
- 2차 - 9월 28일(목) 오전 10시~12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지도’ 어기준 (한국컴퓨터 생활연구소 소장)

•대상 : 자녀지도에 관심 있는 학부모 300여명

•접수 : 9월 18일까지 선착순

•참가비 : 무료

•장소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시청각실)

신청 및 문의 _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429-5562~3)

온고지신 명절 체험 강좌 열립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온고지신 명절 체험 〉

• 일시 : 9월 23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영상다목적홀

- 내용 : 전통 추석 체험 – 추석의 유래, 추석 음식 만들기·맛보기, 전통혼례 체험, 추석놀이 등
 - 모집 인원 : 중·고등학생 청소년 20~25명
 - 참가비 : 무료
- 문의 _ 동구청소년수련관(761-1318 담당 오영애)

인천사랑지도자아카데미 교육안내

인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주인의 측면에서 인천사랑의 참뜻을 공감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인천사랑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인천사랑지도자아카데미가 열립니다.

- 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 모집인원 : 매회 40명 선착순 모집
- 내용 : 강의6강 / 소그룹활동 / 현장답사 / 인천의 역사·문화·환경 /미래 / 인천사랑운동의 기본이해 / 시민생활문화 등
- 운영의 원칙 :자발적 참여의 원칙 / 민주적 운영의 원칙 / 소그룹 운영의 원칙 / 규율준수의 원칙

- 참가비 :없음(점심제공)

- 교육 횟수 및 일정

기수	일정	대 상	내 용	비 고
49기	9. 5 ~ 7(화.수.목)	일반시민	기본교육	3일 전일과정 (오전10시~오후3시30분)
50기	9.26 ~28(화.수.목)			
51기	10.17~19(화.수.목)			
52기	11. 7~9(화.수.목)			
53기	11.21~23(화.수.목)	기본교육수료자	심화교육	

- 신청서는 홈페이지(www.incheonsamo.or.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전화접수 가능함.

문의 _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439-0493~5)

자연안내자 양성 초급과정

인천녹색연합에서 제3기 자연안내자 양성 초급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기간 :10월 12일(목) ~ 11월 23일(목)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 강의장소 : 인천녹색연합 교육실
- 인원 : 20명(선착순)
- 입학금 : 3만원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www.greenincheon.org)
- 제출 기한 : 9월 30일(토)까지
- 강의 내용(현장교육 위주) : 환경교육과 환경문제 / 자연안내자 활동 체험 / 식물의 이해 / 하천습지 / 갯벌의 이해

문의 _ 인천녹색연합 신청은(548-6274 / 017-292-4430)

컨벤션 전시 실무·기획 강좌 열립니다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컨벤션 전시 실무·기획 강좌를 개설합니다.

- 교육기간 : 9월 6일(수) ~ 10월 27일(금) (수, 금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토요일 현장견학 및 전시관 견학)
- 교육내용 : 컨벤션 및 전시 이벤트 산업이해, 컨벤션 기획 실무, 컨벤션 기획서 작성, 컨벤션영업 및 수송, 컨벤션 마케팅 전략 등
- 견학 : 부산BEXCO, 대구EXCO전시관, 일산KINTEX 등
- 문의 :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428-6696~7)

제15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수봉공원의 자연과 더불어 우리의 것을 느낄 수 있는 인천예총 국악회 관에서는 제15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강좌기간 : 9월 11일(월)~12월 9일(토)
- 접수기간 : 8월 14일부터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FAX, 전화접수
- 강좌과목 : 가야금, 민요·장구, 풍물, 한국무용, 판소리, 모듬북, 해금, 대금, 단소

- 기타 : 만65세이상 경로 우대자 및 장애인에게는 50% 할인

문의 _ 국악문화학교(876-8364~5, FAX 876-8367

http://kukakhall.co.kr)

생태공원 지킴이 양성교육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도시공원을 생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은 실천을 위해 주민자치를 여는 인천희망21에서 생태공원 지킴이 양성교육을 준비했습니다.

- 일시 : 9월 5일(화)~9월 29일 (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인천희망21 교육실 (동암역 북광장 우체국 뒤)
- 참가비 : 1만원
- 주최 : 인천녹색연합, 굴포천 살리기 시민모임
- 교육내용 : 도시 생태와 공원 / 생명의 원천, 산란터 ‘물’ 습지 그리고 하천 , 곤충을 부르는 화려한 유충, 식물 / 벌레가 있어야 나비와 새가 날지 / 인천 도심 공원에 살고 있는 식물 / 도심공원에서 사람이 얻는 것 / 물속에 사는 작은 생명들 / 주민이 만든 생태공원 사례 등

문의 _ 주민자치를 여는 인천희망21(426-2621)

2006 인천실버박람회가 열립니다

지나해 총 106개 구인업체에서 구직자 1,880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둔 인천실버박람회가 올해도 인천광역시·경인지방노동청 주관, 인천광역시노인취업정보센터 주최로 9월8일에 열립니다.

- 일시 : 9월 8일(금) 오전 10시~오후4시
- 장소 : 인천광역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 (동춘역 1번 출구)
- 참가직종 : 60세 이상 취업희망자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직종
- 구직자 : 주민등록증, 이력서, 사진 지참 행사장 참석

접수 및 문의 _ 인천광역시노인취업정보센터 (886-1853~5)

9월 축제일정

제3회 인천하늘축제 (9/29~10/1, 인천국제공항공사 잔디마당, 440-3372) www.incheonskyfestival.com

구 분	행 사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Entrance	IIACity 입국심사 / 희망비행기 응모	11:00~21:00	11:00~21:00	11:00~18:00
Welcome Town	무료음료 서비스 / 풍선배포	11:00~18:00	11:00~18:00	11:00~18:00
	Art Balloon 체험	13:00~17:00	11:00~18:00	11:00~16:30
	SKY 어린이 사생대회		11:00~12:00	11:00~18:00
Funny Town	SKY 놀이터	11:00~18:00	11:00~18:00	11:00~18:00
	SKY Academy (비행학교/비행체험)	11:00~18:00	11:00~18:00	11:00~18:00
	SKY Cinema		19:30~21:30	
Event Stage	개막식 및 개막 축하콘서트	19:00~21:30		
	Friendship day SKY 패션쇼		17:30~19:00	
Food & 체험 Town	Food Zone / 유료 체험 Zone	11:00~18:00	11:00~18:00	11:00~18:00

제5회 인천음식축제 (9/29~10/1, 인천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일원, 440-2762)

구	분	행 사
공식행사 및 공연	9월 29일(금) 16:00~20:00	식전행사(군악대 연주 및 풍물길놀이/인천무형문화재 공연) 개막식행사 개막축하공연(인기가수 초청음악회 및 경품행사/문학경기장 북문광장 특설무대)
	9월 30일(토)	시민노래자랑 본선
	10월 1일(일)	7080콘서트 / 폐막식행사
전시행사 – 인천대표음식 전시 및 먹거리 운영, 제과제빵전시, 향토전통 및 특색음식 전시, 좋은식단 모형전시, 지역 식품제조가공업체 생산품 전시, 2014 아시안게임 유치 홍보 등 나눔행사 – 사회복지시설 연계 음식 나눔, 독거노인 초청 무료 음식사식회, 사랑의 김치만들기 등 체험·참여행사 – 제지방축정, 영양진단 등 영양체험관 운영, 가족단위 케익만들기, 향토 및 특색음식 경연대회, 인천음식알기 OX퀴즈 등 이벤트/기타 – 경품추첨, 수타 시연, 무료시식, 떡 만들기 시연 등		

제3회 능허대축제 (9/16~9/17,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 공원 일원, 810-7761~4) www.능허대축제.com

구 분	행 사		
9월 8일(금)	사전행사 (금요일예술무대)	백제왕선발대회/축하공연	
9월 15일(금)	전야제 (금요일예술무대)	라디오 특집공개방송 (Sunny FM)/불꽃놀이	
9월 16일(토) ~17일(일)	무대행사	16일	• 사신행렬 퍼레이드 & 식전공연(중국공연단) • 사신행렬맞이 및 개막식 • 개막 축하공연/ 연수구립예술단/초청가수공연
		17일	• 연수구민 단축마라톤 및 가족걷기대회/역사퀴즈왕 선발대회/연수구 가족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타악 퍼포먼스/퓨전 전자현악 예가/외국공연단 초청공연/어린이 난타 • 폐막식(사상식) 및 폐막공연/폐막선언 및 불꽃놀이
	주행사장	평생학습 & 주민자치 축제한마당/백제역사관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벚찜체험/먹거리 장터/ 연수구 동대항 여자단체전 씨름대회(16일)/연수구 씨름왕 선발대회(17일)	
	옥련شط터	능허대가족사생대회/청소년 만화그리기 대회(16일)/어린이경제체험마당(17일)	
	능허대공원	민속기네스: 떡메치기/민속줄넘기/제기차기/투호/널뛰기 페이스페인팅/가훈씨주기/백제의상 체험/ 백제왕과 독대하다(17일)	

제19회 인천노동문화제 (9/16~9/17, 남구 주안 (옛)시민회관 쉼터공원 등, 874-1479) ilcf.co.kr

구 분	행 사	시 간
9월16일(토) ~9월17일(일)	나눔장터 – 아름다운 가게, 평통사의 무기장난감 바꿔주기, 공부방 아이들 장터 등	16일-오후2시~오후7시
	단체부스 – 홍보 및 세미나	17일-오전11시~오후6시
	한 시간 간격으로 작은 공연과 영화 상영(노동영화 상영회) * 공연과 공연 사이에 체험마당 진행	16일-오후3시~오후6시
	황해 락페스티벌	17일-오전11시~오후2시
	풍물대동국 한마당	16일-저녁7시~저녁8시
	기획공연 – 판굿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17일-오후3시~오후6시
	전시 – 노동문화제 발자취 사진공모전, 노동만화전, 대추리벽화전, 노동미술굿등 체험마당 – 실크스크린, 염색하기, 솟대만들기,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액션페인팅 , 난타배우기 등	16일-저녁8시~밤10시



세상이 웃겨 뒤집어졌다?

집 한 채가 거북이처럼 발랑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이 웃겨 포복절도(抱服絶倒) 한 모양입니다.
엎어진 게 어찌 저 집뿐이겠습니까.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 그리고 남과 북
세상의 모든 게 뒤집어 진 듯합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혹시 저 집만이 옳게 세워진 것이고 나머지는 다 거꾸로 된 것 아닐까요?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웃깁니다.
(강화 동검도 부근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http://www.dcake.co.kr>

생일케익도 떡이젠 떡으로!

전임, 취임, 축하, 창립, 생일, 약혼, 결혼기념일,
선생님, 어르신 찾아뵈실 때, 운전면허증 딴 날,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날엔
우리 떡, 떡케익, 떡 선물세트는
특별한 날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문의전화 1544-1582



예약주문이나 하루 전 주문하시면 인천, 부천 전 지역 무료배달해드리며, 일반떡, 혼수떡, 돌, 백일, 답례떡등 예약하시면 제작하여 무료배달해드립니다.